



[산업] LG전자 '깜짝 선방' 생활가전 왕좌 수성 06



Economy

코스피	2164.17 (-23.76)	코스닥	759.16 (-0.74)
금리 (국고채 3년)	0.846 (-0.006)	환율 (원/달러)	1195.70 (-0.10) (7일)

정의선, 이재용-구광모 이어 최태원과 회동... '전기차 동맹' 퍼즐 완성

'배터리'로 뭉친 재계 빅4, 미래차 強國 성큼

정의선, 알버트 비어만 등 경영진 서산 SK 배터리 생산공장 방문 배터리·충전인프라 확대 등 논의 "최고 기술력 보유사 협업 확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배터리 회동'을 진행하면서 한국 전기차 동맹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앞서 지난 5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현대차-배터리 3사(삼성SDI·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회동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향후 어느 기업과 손을잡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기획조정실 김결 사장,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 등은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기아차 니로EV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현대차

충남 서산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 SK(주) 장동현 사장,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사업대표 등 SK그룹 경영진이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맞았다.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 양사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등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고에너지밀도, 급속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전력반도체와 경량 신소재, 배터리 대어·교환 등 서비스 플랫폼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SK 주유소와 충전소 공간을 활용해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미래 배터리,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대차그룹은 인간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고 인류를 위한 혁신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우리 임직원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 내 니로 전기차에 공급하는 배터리 셀의 조립 라인을 둘러봤다. 2012년 준공한 서산공장은 연 4.7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규모를 갖춘 곳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와 기아차의 니로, 쏘울 EV 등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三電 '깜짝실적' 영업이익 8.1조 시장예측 넘어서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예상 외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실적 상승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52조원에 영업이익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잠정 공시했다. <관련기사 3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56조1271억원)보다는 약 7% 가량 떨어졌다. 전분기(55조3300억원)보다도 6% 가량 적은 수치다. 글로벌 코로나 섯다운 여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조5971억원)보다 22% 이상 크게 증가했다. 전분기(6조4500억원)보다도 훨씬 높은 성적이다.

특히 당초 시장 전망치 평균인 6조5385보다도 크게 높은 실적을 달성해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률도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은 15.6%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언택트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스마트폰 등 세트 부문에서도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건조기와 의류관리기 등 신가전 부문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아이폰 판매 부진에 따른 OLED 패널 공급 축소에 따른 보상을 받아 일회성 이익도 약 9000억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 등 약재가 감지되고 있는 반면, 세트 부문에서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제품 출시와 시장 회복 등으로 성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갈등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하반기 실적 호조를 장담할 수단은 없다"며 "3분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할 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다시 상황이 악화될 지 갈림길에서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김재용 기자 juk@



유동성 위기 대한항공, 극복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이 7일 이사회를 열고 기내식·면세점 사업부 매각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대한항공 항공기들. /연합뉴스

기존 AI 뛰어넘는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KAIST 이준구 교수 연구팀 복잡한 데이터 양자 기계학습 매우 적은 계산량으로 연산 가능

KAIST 전기·전자공학부 및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IT 인력양성연구센터 이준구 교수 연구팀이 비선형 양자 기계학습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양자 기계학습이 가능해졌다.

양자 인공지능은 양자컴퓨터 발전과 함께 현재의 인공지능을 앞설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으나, 연산 방법이 전혀 달라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의 개발

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양자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일차방정식을 잘 푸는 선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비선형적 기계학습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교수팀이 개발한 양자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학습에 있어 매우 적은 계산량으로 연산이 가능해 대규모 계산량이 필요한 현재의 AI 기술을 추월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교수팀은 독일 및 남아공 연구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양자 정보로 생성한 후 양자 정보의 병렬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포킹 기술과 간단한 양자 측정기술을 조합해 양자 데이터 간 유사성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비선형 커널 기반의 지도학습을 구현하는 양자 알고리즘 체계를 만들었다. 이후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제 양자컴퓨터에서 양자 지도학습을 실제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

KAIST 박경덕 연구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npj Quantum Information) 5월 6권에 게재됐다.

기계학습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해

분류하는 것인데, 개나 고양이로 분류하는 작업에서 입과 귀의 특징으로만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기 쉽지 않다면 새로운 결정 경계를 찾기 위해 특징에 관한 정보 공간 차원을 확장해야 하는데 이때 비선형 커널 기술이 필요해진다. 또 양자컴퓨팅은 고전 컴퓨터와는 달리 큐비트(양자컴퓨팅 정보처리의 기본 단위) 개수에 따라 정보공간의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차원 정보처리에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김재용 기자 juk@

보톡스 균주전쟁, 메디톡스 승기... 주름살 낫 대응

ITC “대응계약 나보타, 관세법 위반
美시장 배척, 10년 수입금지 판결”

메디톡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대응계약, 이의절차 진행하기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응계약이 4년여간 이어온 보툴리눔 독신(이하 보톡스) 균주 원조 논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보톡스 균주의 주인이 메디톡스임을 인정 한 셈이다.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해 출시한 ‘나보타’의 판매는 앞으로 10년간 금지됐고, 메디톡스는 벼랑 끝에서 회생 기회를 얻었다.

◆“대응계약, 균주 훔쳤다”

7일 메디톡스와 대응계약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TC에서 진행된 예비 판결에서 “대응계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응 계약을 ‘영업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응계약이 자사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스의 원료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가 나보타

메디톡스-대응계약 보톡스 원료 분쟁 주요 일지		
Medytox	*보툴리눔 독신 제제	대응계약 나보타
대응계약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 영업비밀 침해	주장 내용	자체 개발한 제품, 경쟁사의 음해
*보툴리눔 독신 제제(보툴리눔 균주 원료): '보톡스'로 불리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		
2016년 6월	메디톡스, 미국에서 대응계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툴리눔 독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 제기	
2016년 10월	메디톡스, 서울중앙지법에 대응계약 상대 소송 제기	
2019년 1월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응계약 제소	
2019년 3월	미 ITC 공식조사 착수	
2020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의 '메디톡스'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 메디톡스, '메디톡스' 제조·판매 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2020년 6월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2020년 7월 7일	미 ITC,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2020년 11월	미 ITC 최종판결 예정	

를 제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나보타는 대응계약이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톡스 제제로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발매되면서 국내 보톡스 제제 중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영

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 판결은 반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국내 법원에도 같은 혐의로 대응계약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

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타 행보 가로막히나

ITC가 예비 판결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대응계약이 입을 상처는 크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나보타의 행보가 완전히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대응계약은 지난해 5월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10월에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캐나다에 진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판매 허가를 받아 유럽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대응계약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4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 1분기에는 186억원을 판매하며 매출 성장에 큰 기대를 내세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균주 도용과 같은 상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취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메디톡스는 판매금지 및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막을 수 있

다”고 내다봤다.

메디톡스가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에서도 앨러간과 함께 대응계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메디톡스는 대응계약으로 이직한 전 직원의 고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스 3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메디톡스의 매출 비중이 메디톡스의 40%를 차지하고, 소송 비용으로 인한 피해도 컸던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대응계약은 ITC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응계약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대응계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ITC가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담회' 참석자들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최저임금 “2.1% 삭감” vs “16.4% 인상”

(중단협)

(노동계)

중단협 “중소, 생존위한 사투 중
기업·근로자 위해 최소한 동결해야”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범중소기업계가 ‘최소 동결’을, 소상공인업계는 ‘인하’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사용자단체에 포함된 이들은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8590원보다 2.1% 낮춘 8410원을 최소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많은 8590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올랐

고,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비용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소 인건비가 월 223만원에 달하는 등 임금을 주는 쪽 부담이 너무 높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으로 5월 현재 중소기업계 고용률은 66.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지급 여력이 최악이라는 점도 예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여력만 된다면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 올려주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현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최고 고시 기한이 8월 5일 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은성수 “망 분리 등 보안규제 단계적 검토”

(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
“일상적 위기관리 가능하도록
금융인프라기관에 BCP 적용”

“금융사 업무중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망 분리 등 보안 규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재택근무 확대 등 금융사의 업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며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사의 망분리는 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 망과 인터넷용 외부 망으로 분리하는 금융 보안 규제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밖에서는 금융사 내부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있지만 불분명한 규제를 검토해 임직원이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이날 중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강화하고 한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 내부통제 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사이버 공격, 보이스 피싱 등 디지털 금융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등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도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경상수지 한달만에 흑자전환 성공

한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

지난달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흑자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

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22억9000만 달러 흑자다. 지난 4월의 33억3000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51억8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상품수지 흑자는 25억 달러다. 4월보다는 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흑

자폭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가장 심했다가 5월 들어 조금씩 풀렸다”며 “상품수지가 4월보다 나아질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출 345억5000만 달러, 수입 320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28.2%, 24.8%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JY 뛰고 반도체 끌고 新가전 밀고... “깜짝실적 이유있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언택트 바람에 반도체시장 호조 수요 늘면서 D램·낸드가격 상승 스마트폰 성적도 예상 뛰어넘어 이 부회장 ‘초격차 지휘’도 한몫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시장 성장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 2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5조4750억원, 현대차증권은 5조6000억원을 예상하는 등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이는 전년 동기 3조4000억원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2018년 4분기(7조77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도체 시장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진을 끝내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앞서 미국 마이크론 역시 최근 미국 회계 기준 3분기(3~5월)에 호실적을 거두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을 확인한 바 있다.

삼성과는 달리 매출액이 전년비 13.58% 성장한 54억38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2% 가량 감소한 8억8800만달러였다.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버 업체들이 잇따라 설비를 늘리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동시에 D램과 낸드 등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진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강창진 세메스 사장. /삼성전자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3.31달러였다. 전년 동기보다 17.8%나 높은 가격이다.

6월 들어서는 재고 증가로 인해 상승세가 멈추긴 했지만,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덕분에 하락 전환을 피할 수 있었다. 관련 업체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지만, 다시 재고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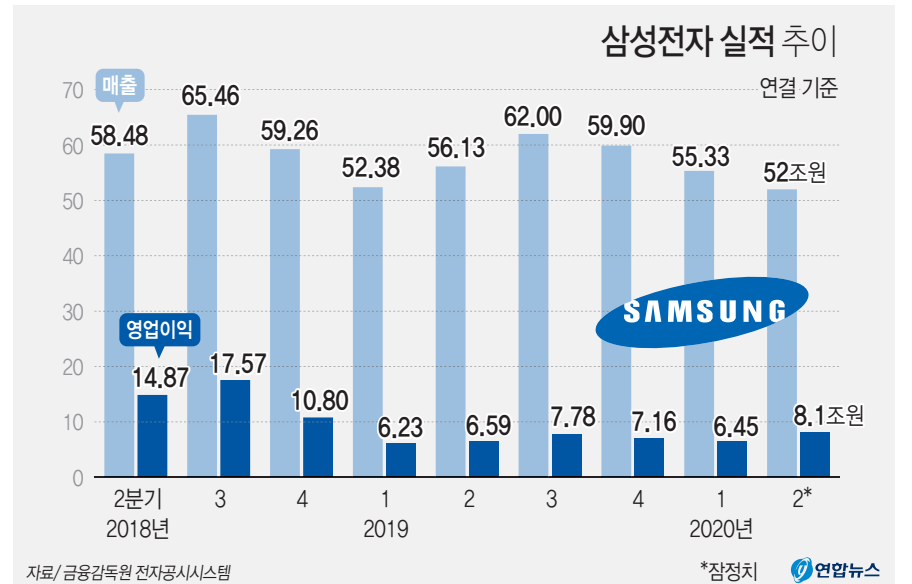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현장 경영에 나서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 시안 반도체를 선택했으며, 평택 사업장에도 EUV 라인 증설을 지시하며 ‘초격차’ 유지를 진두지휘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 모

습이다. 최근 협력사와 산학,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K집’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를 방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도체뿐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예상을 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은 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탓에 2분기 섀다운으로 인한 판매량 급감이 예상됐지만, 섀다운 해제 후 다시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깜짝 실적을 이뤄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IM부문 영업이익 예상치는 1조원 중후반대다. 당초 예상됐던 스마트폰 출하량은 4900만대에 불과했으나, 실제로는 5400만대 가량을 판매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도 호실적에 공



정적인 영향을 줬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이다. 3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연말까지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CE부문도 영업이익을 6000억원 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7100억원)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2분기 절반 가까운 기간인 4~5월에 북미와 유럽 등 매장이 영업을 중지했던 만큼 깜짝 실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수요가 다시 크게 늘었고, 국내에서도 공기청정기 등 위생가전과 함께 에어컨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건조기와 의류기 등 신가전 판매가 증



유출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렌더링 이미지. /샘모바일

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OLED 패널을 축소 공급한 데 따른 보상금 9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SK, ‘E-GMP’ 전기차 함께 만든다

>> 1면 ‘배터리로 뭉친 재계 빅4’서 계속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가 2021년 양산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의 1차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을 선정하고 최상의 성능 확보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E-GMP’ 기반의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탑재될 SK이노베이션 제품은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 전용 모델의 특징점들과 결합돼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2011년 첫 순수 전기차를 선보인 이래 지난달까지 국내의 누적 28만여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전문 매체인 EV세일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1분기 총 2만4116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해 테슬라(8만8400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3만9355대), 폴크스바겐그룹(3만3846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를 판매해 수소전기차 포함 세계 3위권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전기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2026년 전기차 50만대(중국 제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혁신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로봇릭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기차에 필요한 최적화된 배터리 성능 구현을 위해 연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은 향후 전기차 전용 모델에 탑재될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배터리 및 신기술에 대한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그동안 전기차-배터리 사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사가 차세대 배터리 등 다양한 신기술 영역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기본 AI 뛰어넘는’서 계속

양자 회로 체계적 설계 다양한 양자 커널 구현

연구팀은 이 같은 양자컴퓨팅의 장점을 활용해 데이터 특징 대비 기하급수적인 계산 효율성을 달성하는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저차원 입력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큐비트로 표현되는 고차원 데이터 특징 공간으로 옮긴 후, 양자화된 모든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간 커널 함수를 양자 중첩을 활용해 동시에 계산하고 테스트데이터 분류를 효율적으로 결정한다.

연구팀은 또 양자 회로의 체계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양자 커널 구현이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커널 기반 기계학습에서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따라 최적 커널이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양자 커널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점은 양자 커널 기반 기계학습의 실제 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다.

연구팀은 IBM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다섯 개의 큐비트로 구성된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터에서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실험적으로 구현해 양자 커널 기반 기계학습 성능을 실제 시연을 통해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박경덕 연구교수는 “복잡한 비선형 데이터의 패턴 인식 등을 위한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활발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5대 시중銀, 상반기 기업대출 43조 증가

8.3% 증가... 건전성 관리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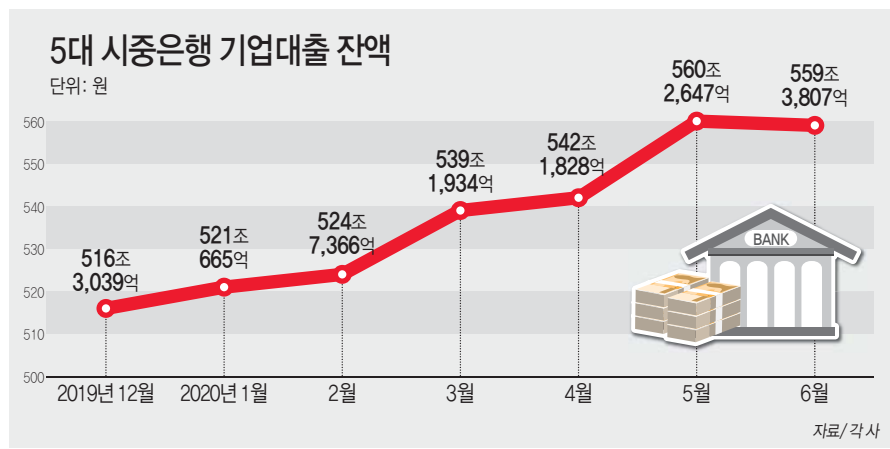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은행에 손을 내민 탓이다. 그만큼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원화 대출액은 총 1208조9229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

교해 68조8678억원(6.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은 총 559조3807억원으로 전년(516조3138억원)보다 8.3%(43조760억원) 늘었다. KB국민은행의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21조600억원에서 133조1530억원으로 10.0%(12조930억원)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기업대출은 105조1265억원에서 113조5474억원으로 8.0%(8조4209억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99조5757억원에서 106조6221억원으로, 우리은행은 97조844



억원에서 104조9261억원으로 각각 7.1%(7조464억원)과 8.1%(7조8417억원)씩 기업대출이 늘었다. 농협은행도

기업대출이 93조4572억원에서 8.2% 증가한 101조132억원을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해외주식 매수·매도 최고치 기록

밖으로 눈돌린 동학개미... 테슬라·애플 등 90兆 샀다

2분기 외화증권 결제 90.8조 기록
외화주식 보관잔액 27.1조 집계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해외 눈길
일각선 변동성 확대 주의 지적

지난달 해외주식 거래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758억6000만달러(약 90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올 1분기 665억8000만달러 보다 58.3%나 늘었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주식 보관잔액은 올해 상반기 227억5000만달러(약 27조 1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하반기 기준 144억5000만달러(약 17조 2000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외화주식 보관잔액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총 가치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187.93)보다 23.76포인트(1.09%) 내린 2164.17에 장을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59.90)보다 0.74포인트(0.10%) 내린 759.16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8.6원)보다 0.1원 내린 1195.7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투자자들이 국내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018조6000억원으

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넘치는 유동성이 투자와 소비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 1위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대형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해외

(주요국 외화주식 예탁결제 순위)

순위	국가	종목명	매수결제
1	미국	테슬라 모터스	632,784,469
2	미국	애플	421,807,132
3	미국	보잉	379,895,335
4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373,411,986
5	미국	아마존	206,638,200

7월 7일 기준, 단위: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대형주로 '테슬라'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상반기 순매수 규모만 4억 7000만달러(약 5600억원)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2240억달러(약 270조원)로 폭스바겐을 넘어 기존 전세계 자동차 시총 1위였던 일본 토요타(약 210조원)를 앞질렀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년새 500% 상승했다. 지난해 7월 230달러(약 27만원)에 살 수 있던 테슬라 주식은 지금 현재 1371.58달러(약 15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매수상위종목은 애플, 보잉, 마

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순이다.

한편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가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거의 회복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실적이 비대면(언택트)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영한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간 줄다리기가 팽배한 가운데 하반기에 맞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종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확실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높아질수록 미국 대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갈등 고조처럼 경기회복 속도를 저해할 수 있는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은 높은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현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노사분규 장기화시 일자리 매년 5만개 감소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

자동화 촉진으로 기계대체 가능성

노사분규가 길어지면 자동화가 촉진돼 일자리가 매년 약 5만개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계에서 자동화가 가장 잘 된 우리나라 특성상 사람을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내놓은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이다. 대한민국은 평균보다 1.4점 낮은 3.4점을 기록했다. 숫자가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마지현 연구원은 "노사분규가 1% 심

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며 "실증분석결과를 대한민국 사례에 적용하면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노사협력지수가 낮은 것은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OECD국가의 자동화 지표(근로자 1만명당)는 대한민국이 458대로 가장 높았다. OECD국가 평균은 114대로 한국이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마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사분규를 제재하는 강도가 낮다"며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회사에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기재부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할 것"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現 금융세제 방식 형평성 지적
"금융 세제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

기획재정부가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현재 금융 세제 방식에 대해선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금융 세제를 손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확정에 앞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과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발표자로 나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위해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겠다"고 했다. 모든 소득(양도차익·배당금 등)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 세제에 대해선 세 가지 지적했다. ▲상장 주식·채권·장외 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고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과도하며 ▲고소득층일수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펀드 과세 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 주식 양도 손익을 포함해 불완전·손실 과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과장은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 대상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호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우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뉴시스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 발생한 펀드의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관리돼 손익통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펀드 발생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배당으로 분배를 강제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의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 중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둔 이유에 대해 김과장은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확립된 이론은 없고 일부 선진

국은 모든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라 일단 그 정도로 제시했다"고 답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 중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 20~25%에 대해선 "단순한 2단계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은 자본소득세 10~20%의 세율을, 미국은 15~20%를, 일본은 20%를,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5%·30%를 매기고 있다.

기재부는 공청회와 금융기관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오는 9월 초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엔 금융사 원천 징수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하반기 개정 세법 중 필요 사항 보완 입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vin@

‘코로나로 애로’ 中企 지원 위해 신한금융, 외화소셜본드 첫 발행

해외투자자 대상 미화 5억달러
채권 발행금리 1.365%
국내 업계 최초 특수목적채권 발행

신한금융지주가 지주사로는 처음으로 외화 소셜본드 5억달러 발행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는 7일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해외투자자 대상 미화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본드(Social Bond)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셜본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채권이다. 신한지주는 이미 지난해 8월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속가능(ESG)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

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발행은 신한지주의 높은 신용등급(Moody's A1, S&P A)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채권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10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인 1.365%이다.

특히 신한지주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특수목적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를 외화로 발행한 것 역시 신한지주가 처음이다. 신한금융은 이번에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본드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신한금융은 지주의 높은 신용등급 및 발행 역량을 활용해 비은

행 회사의 외화조달 장구를 지주로 일원화 하는 등 그룹차원의 최적화된 외화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소셜본드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행됐다”며 “코로나19로 변동성이 높아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기업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행은 총 134개 기관에서 발행규모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약 23억달러의 주문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23% ▲아시아 59% ▲유럽 18% 등의 분포를 보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장미경 부행장(가운데) 및 임직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덕분에 챌린지’ 수어를 표현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전국민 응원 ‘덕분에 챌린지’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여신심사 부문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응원 캠페인이다. 국민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를 표현한 사진과 관련 해시태그를 SNS에 게시하고, 릴레이 형식으로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당초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

하다가 지난 6일부터 전 국민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장미경 부행장은 지난 1일 수협중앙회 강신숙 상무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은행연합회 김혜경 상무와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이향숙 교수를 지명했다.

장 부행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농협은행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 올해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 항공업·해운업 영위 기업
심의회 거쳐 2020년 필요자금 고려
고용유지 위한 노사 노력사항 제출



정부가 올해말까지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기간안정기금 신청을 받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을 받는다.

산업은행은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 기간산업 추가 지정시에는 별도 공고한다.

기업은 2019년 연말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으로, 지난 5월 기준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12월 결산법인인 아니거나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

지 않은 비용 발생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단 기금의 자금지원과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유예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출기간은 3년이며,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을 감안해 산정한다. 상환은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등을 감안해 산정하고,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 3%로 적용한다.

지원조건은 지난 5월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을 제출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자사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홍콩 IB법인 S&P ‘A등급’ 획득

홍콩우리투자자銀, 작년 최대 영업실적

우리은행은 홍콩 IB법인인 홍콩우리투자자은행(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로부터 국제신용등급 ‘A(긍정적)’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S&P는 홍콩우리투자자은행이 장기신용등급 중 6번째로 높은 ‘A’를 부여했다. S&P측은 이번 평가 이유에 대해 “우리금융그룹에 해외대체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홍콩에서 우리은행의 핵심 회사사로 역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콩우리투자자은행은 우리금융그룹에서 유일하게 해외IB 플랫폼 및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홍콩우리투자자銀行, 작년 최대 영업실적

홍콩우리투자자銀行, 작년 최대 영업실적

홍콩우리투자자銀行, 작년 최대 영업실적

/이영석 기자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원리금 보장상품’

하나은행은 7일 퇴직연금 전용 자유적립식 원리금 보장 상품을 출시했다. 자유적립식 원리금 보장 상품은 하나생명보험과 협업해 개인 퇴직연금(IRP) 손님에게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다.



율은 2.2%(세전수익률)로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중단된다.

이장성 연금사업단 본부장은 “그동안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은 입금 시마다 만기 및 이율이 상이하여 자산 관리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자유적립식 상품 출시를 통해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더 최적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은 상품 매수 시마다 만기와 적용 이율이 다르나 자유적립식 원리금 보장 상품은 최초 매수 시 만기 및 이율이 확정돼 금리 하락 시기에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상품은 개인형 IRP 신규 가입 손님 및 타 금융기관 계좌이전 손님에 한해 비대면(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 채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 1만원 이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7월 기준 판매 예정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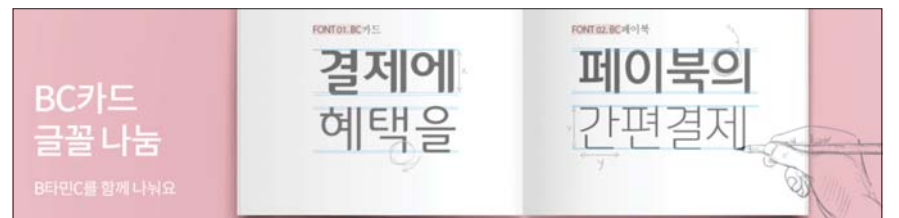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시각장애인 거래 편의 확대

BNK부산은행은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부산점자도서관과 ‘점자약관 등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약관 등을 요청하면 부산점자도서관에 제작을 의뢰한다. 제작이 완료되면 우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분들께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점자도서관과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BC카드에서 공개한 ‘BC카드체’, ‘페이북체’ 이벤트 안내문. /BC카드

BC카드가 개발한 글꼴 무료 배포

BC카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글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은 총 두 종류다. BC카드 CI인 원형 심볼을 모티브로 친근한 느낌을 살린 ‘BC카드체’, 직선의 요소를 반영에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페이북체’다. 두 종류 모두 BC카드의 홈페이지와 페이북 서비스를 통해 사용해온 글씨체다. /이영석 기자 ysl@

BC카드 관계자는 7일 “폰트는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상업적 용도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꼴은 비씨카드 홈페이지 이벤트 ‘문화·여가’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영석 기자 ysl@

코로나 쇼크에도 ‘깜짝 선방’... LG, 생활가전 왕좌 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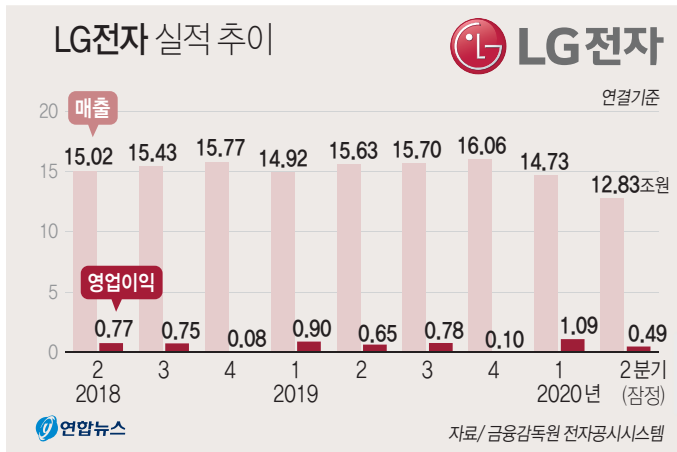
영업익 4931억, 24.4% 줄어
시장 전망치보단 성적 양호
온라인 매출 늘면서 효율 높여
신가전, 벨벳으로 적자폭 완화

LG전자가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높은 실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2분기에 매출액 12조8340억원에 영업이익 4931억원을 달성했다고 7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15조6292억원)은 17.9%, 영업이익(6523억원)은 24.4%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2015년(2441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에 따라 섀다운과 락다운 조치를 강행하면서 주요 판매량이 문을 닫은 탓이다. 아울러 해외 생산 라인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공급까지 축소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다.



단, 시장 전망치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 2분기 실적을 매출액 13조2752억원에 영업이익 4011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는 매출액이 소폭 줄어든 대신, 영업이익을 900억원이나 더 달성한 것.

업계에서는 LG전자가 프리미엄 비중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으며, 코로나19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온라인 매출 증가로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기청정기와 스타일

러, 식기세척기 등 신가전 판매량을 확대한 영향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트루 스팀'을 활용한 제품군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합한 워시타워 출시 1달여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면서 에어컨 판매량도 대폭 늘었다.

이에 따른 생활가전 부문 실적 추정치는 매출액이 5조원 초반대, 영업이익은 5000억원대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에도 생활가전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지켜내는 셈이다.

DB금융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TV·생활가전 등 세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2분기 중반 이후 유통망 개장과 각국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심리 최악 탈피 등으로 수요가 일부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TV부문은 매출액 2조원대 초반에 영업이익 1000억원대 초반 실적이 유력하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3조6712억

원)은 45%, 영업이익(2056억원)은 51%가 쪼그라든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신 프리미엄 TV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 부문은 영업손실이 2000억 원 정도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년 동기(3130억원)와 비교하면 적자가 1000억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비용을 축소하는데 성공했고, 신제품인 벨벳이 인도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등 실적 덕분이다.

LG전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하면서, 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5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성장한 상태다.

3분기부터는 가전 제품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OLED TV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며 큰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모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장세욱 부회장 “직원 자존감이 회사 가치로”

동국제강 창립 66주년 기념 메시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창립 66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국제강은 7일 창립 66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본사와 각 사업장에서 간소화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행사 방식의 기념식 대신 담당임원 주관의 장기근속상 수여식과 온라인 이벤트로 간소화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나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모두와 회사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7월 7일 오늘의 동국제강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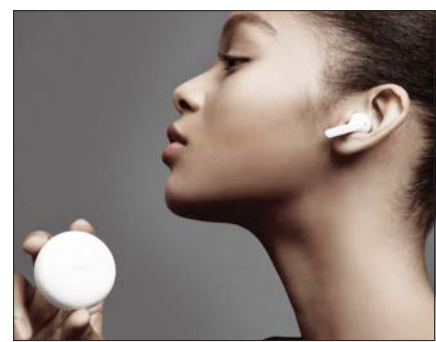
창립 66주년 기념일에 근속상을 수상한 동국제강 직원들 모습.

매년 창립기념일 당일 실시했던 동국제강의 ‘나눔지기 봉사단’ 활동은 소규모 인원이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생필품과 건강식품 등이 담긴 ‘해피박스’ 170여 개를 전달하는 언택트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다.

동국제강은 유튜브에 창립기념일에 맞춰 야간 조업 중인 현장 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동국제강의 야간 현장’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확산에도 봉항감 감소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성준 기자 ysw@

LG, 무선이어폰 ‘톤 프리’ 10일부터 예판

네이버 쇼핑서 단독 판매
액세서리 증정 행사 진행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



LG전자가 오디오 업체와 협력해 프리미엄 사운드를 구현한 무선 이어폰 ‘톤 프리(사진)’를 출시하고 액세서리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전자는 ‘톤 프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 단독으로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LG베스트샵, LG전자 온라인 공식 판매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톤 프리 무선 이어폰은 명품 오디오 업체 메리디안의 신호처리 기술과 튜닝 기술 이퀄라이저를 적용했다. 새로운 이어폰 디자인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성능 등까지 고려해 프리미엄 사운드를 완성했다.

LG전자는 이어폰에 부착하는 이어젤이 피부에 직접 닿는 점을 고려해 국

제표준 규격 ISO 10993에 따른 피부 접촉 관련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실리콘 소재를 채택했다.

이어폰은 단 5분만 충전해도 최대 1시간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IPX4 등급의 방수 기능도 갖춰 힘이 많은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어폰을 보관·충전하는 케이스에 탑재한 무선 충전 기능, 소리가 나오는 홀 안쪽을 살균해 주는 UV나노(UVnano) 기능 등도 탑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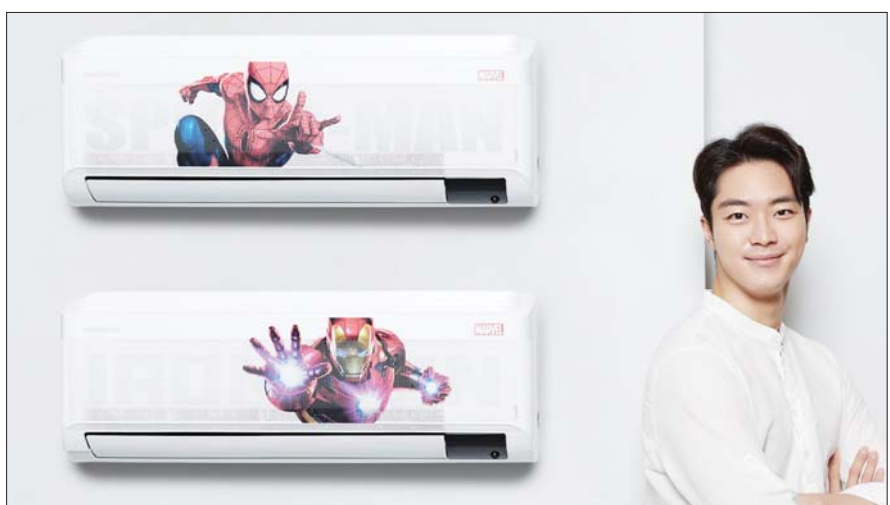
“아이언맨이 우리집 무풍에어컨 속으로 쪽~”

삼성전자, 마블·디즈니 컬렉션
토이스토리 버즈 등 한정 판매

삼성전자 벽걸이 에어컨이 겨울왕국에 이어 마블 캐릭터까지 품는다.

삼성전자는 7일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에 디즈니 인기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디즈니 컬렉션’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한 겨울왕국2 에디션에 이은 후속작으로, 겨울왕국2 올라프와 미키마우스를 비롯해 마블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토이스토리 우디와 버즈 등 패넬을 선택 가능하다. 디즈니 컬렉션은 2020대만 한정판매되며, 2020년형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제품(모델명 AR07T9170HC)에 패넬을 갈아끼우며 사용할 수 있다.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패넬을 적용한 무풍에어컨.

출고가는 108만원이다. 패넬은 주문 제작방식으로 만들어져 에어컨과 별도로 순차 배송해줄 예정이다. 삼성닷컴

에서 구매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는 한샘 샘키즈 수납장도 증정한다.

NHN, 中 이커머스 거래액 1000억 돌파

상반기 역대 최대 기록

NHN의 올 상반기 중국 이커머스 사업 거래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NHN에이컴메이트는 올 상반기 누적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인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8 쇼핑축제’ 기간에만 총 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NNH에이컴메이트는 NHN 고도의 중국 기반 커머스 계열사다.

NHN에이컴메이트는 알리바바의 B2C 쇼핑플 ‘타몰’의 공식 파트너사다. 이 중 거래액 상위 3% 안에 드는 유일

한 한국 기업이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물류 및 유통 여건 악화 등 커머스 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 이뤄낸 유의미한 성과”라며 “에이컴메이트가 ‘618 쇼핑축제’와 ‘언택트’를 전략적으로 공략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현재 100여 개의 한국 브랜드가 NH에이컴메이트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화장품이 전년 동기 대비 106%, 건강기능식품과 퍼스널케어 각각 75%, 56%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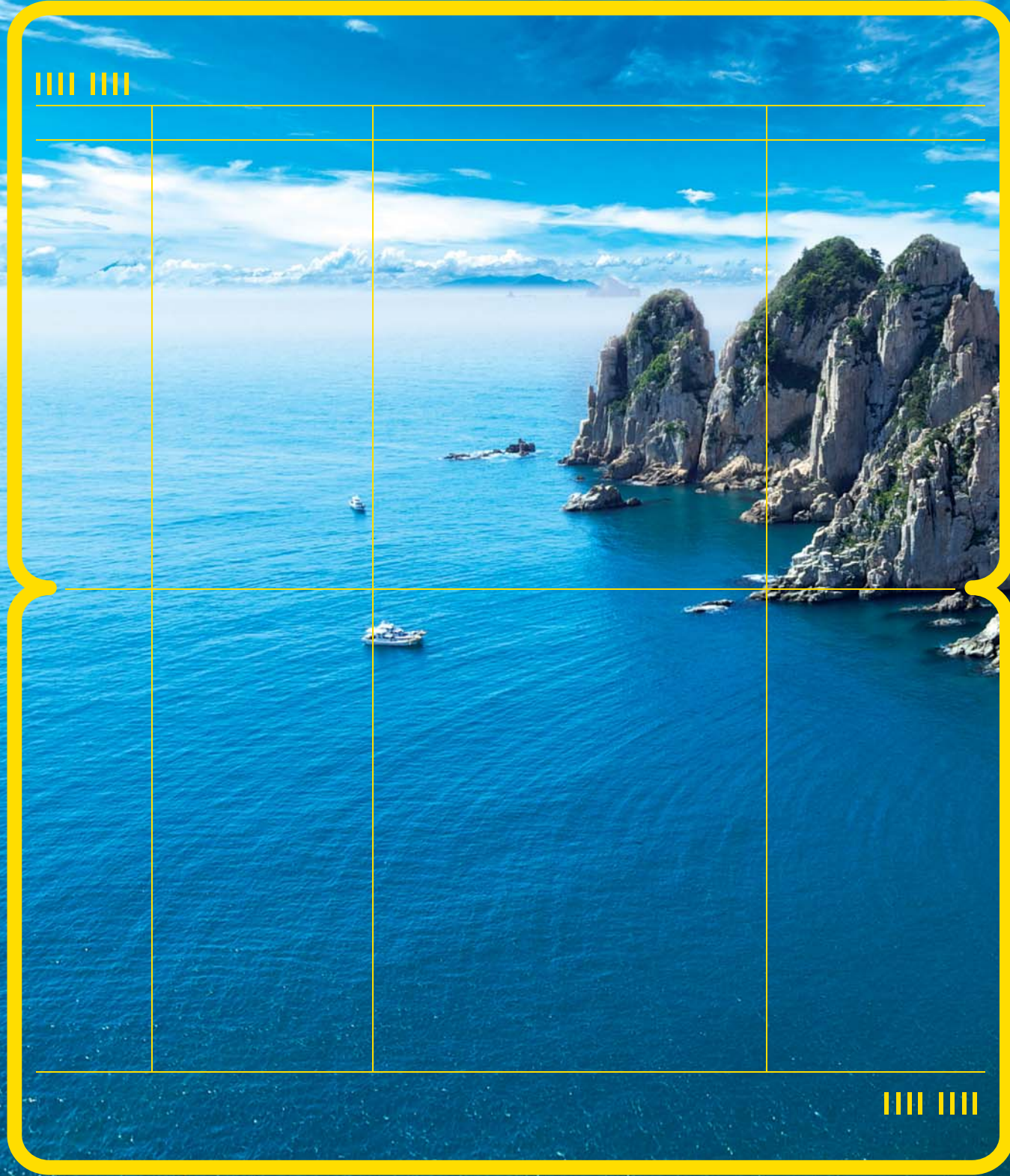
/김나인 기자 silkni@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맑은바다패키지와 함께하는 海 맑은 변화

KB국민은행은 더 푸른 바다, 더 맑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통영 소매물도

KB맑은바다적금

- * 신규가입 1회당 은행이 5,000원씩 매칭기부
- * 맑은바다를 위한 활동에 동참 시 우대이율 제공(최고 연0.8%p)

KB맑은바다공익신탁

- *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고객이 신탁보수(선취)의 10%를 기부하는 공익적 금융 상품
- * 연말 정산시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

[KB맑은바다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KB맑은바다공익신탁]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발생하는 선취보수(1%)의 10%를 환출받아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기부 목표금액 1억원 달성 시 판매가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229호(2020.06.26),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까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084호(2020.7.2~2020.12.31)

GS칼텍스-LG화학, 전기차 충전 솔루션 개발 MOU

빅데이터 활용 배터리 특화 서비스

시그넷이브이 등 업계 파트너 협업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 우선 개발
빅데이터로 현재 상태·위험성 확인

GS칼텍스와 LG화학이 전기차업계
파트너들과 손잡고, 빅데이터를 활용
한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7일 서울 여
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
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
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전기차 생태
계 발전을 위한 충전 솔루션 개발 필요
성에 뜻을 같이 하고, 전기차 충전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배
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
서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
하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LG화학 자동차전
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과 GS칼텍
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전무, 시그넷
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왼쪽부터)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 LG화학 김동명 부사장, GS칼텍스 김정수 전무,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S칼텍스

희 대표,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를 비롯한 업
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전소에서 수집한
전기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
터리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
으로, GS칼텍스와 LG화학은 우선적
으로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
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
는 전기차(그린카, 케이에스티 모빌리
티)가 GS칼텍스 충전소에서 충전을 진
행하는 동안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클

라우드에 저장하고, LG화학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
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을 확
인해 충전기(시그넷이브이)는 물론 운
전자의 휴대폰(소프트베리)에서도 바
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내년까지 실
증 사업을 완료한 후 국내 서비스 사업
을 론칭하고, 2022년부터 해외 충전 시
장으로 배터리 특화 서비스 사업을 확
대할 예정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클라우드 시장경쟁 '후끈'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사업 시작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플랫폼 사용

국내 시장이 클라우드 격전지로 주목
받고 있다. 향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클라
우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기업들
이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
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i)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까지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경
쟁 구도가 주목된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운영은 자
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맡는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는 카카오의 10
년간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로,
카카오는 퍼블릭, 프라이빗 및 여러 기
업의 클라우드를 멀티, 하이브리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카오 서비스들과의 연결성과 AI
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도 강점이다. 다
양한 AI 서비스를 서비스형 플랫폼(P
aaS)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해 차별점을 뒀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



카카오는 이달부터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
업을 진행한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홈페이지 캡처

플랫폼(NBP)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강원 춘천
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세종시
에 제2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
다. 연내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완공
이 목표다.

카카오는 현재 데이터센터를 대여해
쓰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
는 상황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
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
라클, 구글, IBM 등 해외 기업이 패권
을 다투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
드 시장의 67%를 해외 기업이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코로나 사태에도 수입차 인기 여전 ... 獨 브랜드 판매 증가

신규등록대수 전년동기비 17% ↑
日 브랜드, 갈수록 입지 축소



벤츠-BMW-아우디 로고.

국내 수입차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흥
행을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 상승과 올해
수입차로 합류한 쉐보레 브랜드의 판
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이같은 분위
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일본차 브랜드는 지난해 불
매 운동 이후 갈수록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7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
기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년동기
(10만9314대) 대비 17.3% 늘어난 12만
8236대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벤츠는 국내서 3만3638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9.8% 증
가했다. 이어 BMW는 2만5430대를 기

록 전년 동기대비 41.5%나 급상승했
다.

특히 아우디코리아는 올 상반기 1만
7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아우디가 상
반기에 1만대를 돌파한 것은 2016년 이
후 처음이다.

다만 2016년 상반기에는 1만대를 돌
파했지만 디젤게이트가 본격적으로 국
내 영향을 미친 하반기부터 판매가 급
감해 그 해 2만대를 돌파하지 못했다.
아우디는 지난 6월 한 달 간 3401대를
기록, 전월대비 56.2% 늘어난 판매량
을 보이며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극복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처음 수입차 시장에 합류한
쉐보레는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
트럭 콜로라도의 인기에 힘입어 7380대
를 판매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브랜드별 신
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등 긍정적인 영
향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
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축소하
면 기존 100만원까지였던 감면 한도
혜택을 무한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도
세금 혜택은 5%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국내 수입차 전체가 상승
세를 이어가는 건 아니다. 같은기간 일
본차들의 판매는 상반기 총 1만43대로
전년 동기(2만3482대) 대비 57.2% 판
매가 급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달 24일 쌍용자동차 대전연수원에서 참석자들이 교육 수료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쌍용차, 軍 정비기술 역량 강화 지원

수송부대 병력 대상 정비기술 교육

쌍용자동차가 국군의 차량 정비기
술 향상 및 군부대 내 정비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보재 기증과 함께 정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의 정비기술 역
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월과 6월 쌍용차 대
전연수원에서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맡게 된 한빛부대를 포함해 육군과 공

군의 작전차량 정비를 전담하는 정비
대대 및 수송부대 병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비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총 9차수로 나눠 진행된 교육 기간 동
안 참석자들은 경정비 교육을 비롯해
차량 시스템별 기능 설명, 고장 진단 및
고장 유형별 분석방법 등 지휘차량 및
지원차량 관리에 필요한 정비기술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2030 전용 구매 프로그램 출시

차량구매 부담 완화 '스타트 플랜'
가격 유예·특별 저금리 등 적용

기아차는 2030 세대의 차량 구매 부
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구매 프로그램
인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고 7일 밝혔다.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은 ▲차량 가
격 일부 유예 ▲특별 저금리 적용 ▲다
양한 부가 서비스 연계 등의 혜택을 제
공하는 기아차만의 특별한 구매 프로

그램이다.

구체적으로 7월 중 모닝, 레이, K3,
니로 HEV, 쏘울, 스토니, 셀토스, 스
포티지 차량을 출고하는 2030 세대 개
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이번 프로그
램을 이용할 경우, 총 48개월의 할부 기
간 동안 ▲선수율 제한 없이 차량 가격
의 최대 57%를 유예하고 ▲3.5%의 특
별 저금리 혜택을 적용 받아 차량 구매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또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 이용 고



기아차 스타트 플랜 구매 프로그램.

객이 기아차의 다른 차종으로 대차를
고려할 경우,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
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차량을 매각한
후 남아 있는 유예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SK매직, 고객 맞춤형 영상 상담 실시

콜센터·A/S기사, 3대1 동시 접속

SK매직은 고객 문의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모바일 영상 상담 서비스'
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영상 상담 서비스'는 콜센터
상담사와 고객의 휴대폰 카메라 영상
을 통해 진행되는 영상 상담 서비스로
고객은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애
증상과 상황을 휴대폰 영상으로 전달

하고, 장애 조치 방법 등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고객은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
이 콜센터 상담사가 발송한 단문메시
지서비스(SMS) 링크를 클릭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접속 후
에는 콜센터 상담사뿐 아니라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A/S기사까지 3대1
동시 접속해 실시간으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장애 등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갈 길 바쁘는데... 바람잘 날 없는 재건축단지

흑석

조합내부 갈등, 시공사 재선정 가능성도

둔촌

'2900만원 분양가' 찬-반 대립 공사중단

서울 흑석9구역과 둔촌주공 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장이 내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반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흑석뉴타운의 흑석9구역이다. 최근 흑석9구역 조합은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 조합 간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흑석9구역조합과 롯데건설은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협상에 실패하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롯데건설 측은 흑석9구역 조합의 협상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 **흑석9구역 다음 달 조합장 선거 예정**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은 조합장 선거를 준비 중에 있다. 이곳은



철거공사를 진행중인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연합뉴스

현재 롯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길 원하는 옛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 갈등을 겪는 중이다. 흑석9구역 조합은 아직 새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롯데건설과의 협상이 결렬해도 시공사 선정작

업은 연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다음 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새 시공사 선정은 조합장 선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 **둔촌주공 분양가 문제로 갈등**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일반 분양가 수용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2900만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현 조합장 사퇴를 공식 발표한다.

조합 집행부는 HUG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 확정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사업단이 지난 24일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반분양가를 수용하고,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HUG의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며, 차라리 후분양으로 가지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총회 안건 상정·의결 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일반분양가 확정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사업단이 지난 24일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2조6708억원에 달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SK건설, 우즈벡 친환경 정유공장 설계 수주

UNG와 72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 본격 돌입

SK건설이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친환경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SK건설은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NG와 6억 달러 규모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의 설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720만 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SK건설과 UNG는 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양국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공장 전경. /SK건설

정상회담 사전행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경제협력 회담을 통해 이번 계약을 확정했다. 양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계약식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본 설계(FEED)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는 물론 적용가능한 세부 기술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산출하는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주요 내용들을 검토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37km 떨어진 부하라 지역에 위치한 일산 5만 배럴 규모의 부하라 정유공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SK건설은 정유공장 시설을 개선해 중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 석유제품으로 전환시키고, 가솔린, 디젤 등의 제품 품질을 새로운 친환경 규격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상반기 증권결제대금 일평균 27조 돌파

장내 주식 일평균 결제대금 7188억

올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이 일평균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증권결제대금이 27조6000억원을 기록해 직전반기(24조원) 대비 15.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23.1조원) 대비 19.3% 증가한 것이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 간 주식·대금의 결제인 장내·외 주식결제대금은 1.63조원으로 직전반기(1.13조원) 대비 43.5%나 증가했고, 전년 동기(1.17조원) 대비 39.1% 늘었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와 은행 간 채권·대금의 결제인 장내·외 채권결제

대금은 26조원으로 직전반기(22.9조원) 대비 13.7% 증가했고, 전년 동기(22조원) 대비 18.3%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장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7188억원으로 직전반기(4814억원)보다 49.3% 늘었다. 거래대금은 22.4조원으로 직전반기(10.6조원) 대비 111.2% 증가했고, 차감률은 직전반기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결제대금 역시 늘었다.

장내 채권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2.38조원으로 직전반기(1.85조원)보다 28.9%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9.23조원으로 직전반기(10.35조원) 대비 10.8% 감소했으나, 차감률이 직전반기 대비 7.9%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결제대금은 증가했다. /박미경 기자 miikyung96@

2차전지 특화 믹싱장비 개발... 전기차 수요확대 수혜

IPO 간담회

티에스아이, 코스닥 이전상장

유럽 중심의 전기차향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하며 수혜주로 떠오른 티에스아이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티에스아이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을 통해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티에스아이는 2차전지 전극 제조공정 중 믹싱 공정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믹싱공정에 특화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에 2017년 10월 상장했다. 믹싱공정은 전극 공정 중 전극활물질, 도전재, 결합제 등 용재를 섞어 슬러리 형태로 만든 후 코팅 공정까지 공급하는 과정을 뜻한다. 국내 배터리 3대장으로 꼽히는 LG화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이사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티에스아이

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들의 매출비중이 지난 1분기 기준 93.4%를 차지한다.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는 "2차전지에 특화된 차세대 믹싱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했다"고 소개했다.

표 대표는 분산기술센터에 대한 자량

을 늘어놓았다. "양산용 테스트 장비를 보유했다"며 "고객에게 직접 설비 효능을 경험하게 해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전기차 판매 보조금 혜택 강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라는 정책적 기대감도 있다. 표 대표 역시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주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고객사의 추가 확대도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티에스아이는 지난해 매출액 610억원, 영업이익 5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수준이다.

티에스아이의 총공모 주식 수는 185만주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 수의 38.4% 수준인 356만주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7500원에서 9500원으로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695억~880억원이다. 6~7일 이틀간 수요예측, 오는 13~14일 청약을 거쳐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포스트 코로나' 상업시설 새기준 제시

대우건설

'아클라우드 감일' 9월 공개

대우건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된 생활·소비 트렌드와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대형 상업시설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9월 서울 송파구와 맞닿은 감일지구 중심상업용지 1BL에서 지하 1층~지상 2층 총 3만8564㎡(약 11600평) 규모의 상업시설 '아클라우드 감일'과 아파트 496가구 규모의 '감일 푸르지오'를 동시에 공개한다.

'아클라우드 감일'은 대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상업시설 브랜드 '아클라우드'의 첫 적용 상품으로 '아클라우드'는 호(弧)를 뜻하는 'ARC'와 구름을 의미하는 '클라우드(CLOUD)'의 합성어다. '아클라우드 감일'은 온라인 소비에 지친 현대인이 휴식, 문화, 여유, 힐링과 함께 소비를 즐길 수 있도록 '패밀리(Family), 힐링(Healing), 에코(ECO)'라는 컨셉으로 설계됐다.



네덜란드 카브사(社)가 설계한 '체험형 놀이터 & 이벤트광장 조형물 '클라우드(Cloud)'. /이규성 기자 peace@

세계적인 공간기획 전문설계사인 네덜란드 CARVE(카브사(社))가 대형 체험형 놀이터, 이벤트광장과 조경을 디자인해 전체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열린 공간(오픈 에어·Open Air)으로 구성, 해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진화된 상업시설을 구현한다.

이러한 오픈 에어(Open-Air) 공간 기획으로 기존의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서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과 함께 쉬고 휴식을 누리는 공간, 상가전용 429대의 넓은 주차장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5G 과징금’ 사상최대說... 이통사 “시장위축 큰 타격” 울상

이번주 단통법 최종 협의안 발표
예상 과징금 규모 700~800억원
이통사, 재발방지대책 등 선처 호소

이동통신3사가 5G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오는 10일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단통법 개정 방향을 최종 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단통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5G 관련 불법보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인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금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침체 등

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이 과열되자 4개월 간에 걸쳐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506억원이다. 예상치가 맞다면, 역대 최대 과징금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고, 이동통신사가 5G 설비 투자 등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타격을 클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지난달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5G 초기 가입자 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다. 초기 5G 상용화 보급에 힘쓸 때 보조금 지급도 이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는 연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악재로 목표치도 하향 조정됐다. 자칫하다 5G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다. 오는 10일 토론회에서 그간 협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지원금 규제 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이 달라질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온투법 D-50’ 부실 P2P 업체 걸러낸다

부정 발견시 업계 위축 우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변수’
영세업체, 감시인 선임 난항



/유토이미지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 ‘전수조사’와 각 회사의 ‘준법 감시인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온투법 시행 전후로 국내 P2P업체 240여 곳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격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P2P 업체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8월 등록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사 중 대형업체의

부정이 발견되면 P2P 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P2P금융업체 임원은 “수 년 간 노력 끝에 이제야 겨우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며 “혹시라도 대형 업체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다면 업계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수는 ‘준법 감시인’의 선임 여부다. P2P 업체들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

상 근무 ▲금융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 5년 종사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형 P2P 업체들은 잇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임 여부를 공개한 곳은 어니스트 펀드, 펀다, 넥핀, 모우다 등이다. 아직 준법감시인 선임 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업체는 “기존 내부인력 중 요건에 맞는 인물이 있어서 온투법 등록 전에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1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 선임을 못 하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대부업체로 돌아가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석 기자 ysl@

한투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원금 70% 지급

조건 없이 14일 일괄 지급



서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0%에 대한 선 시간을 두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투증권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옵티머스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원금 70%를 오는 14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헤르메스 전문투자 제1호(167억원) 뿐만 아니라 만기가 내년 1월 예정인 옵티머스가우스 전문투자 제1호(120억원) 투자자까지 모두 선지급 받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펀드 자산 실사 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9월 말까지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시작됐다.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현재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만기가 남은 상품을 감안하면 추가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500억원가량에 달한다.

/송태화 기자 alvin@

한전, 플러그만 꽂으면 전기차 자동 충전

한국전력공사가 보다 편리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전력은 7일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를 연결만 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Plug and Charge(플러그 앤 차지) 충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플러그 앤 차지’ 충전은 전기를 충전기와 연결하는 즉시 전기차에 저장된 차량 정보와 결제 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사용자 확인과 결제 단계 없이 간편하게 충전하는 방식이다.

기존 충전방식은 충전시 회원카드 인증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해 사용자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지

만, 해당 충전은 충전기에 꼽기만 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내년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 전기차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공용 급속충전기에 해당 기능을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내년이면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향후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보안통신 인프라를 민간 충전사업자나 전기차 제조사에게도 제공할 것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연구원에 구축된 실증용 ‘Plug & Charge’ 전기차 충전소. /한국전력공사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3년까지 자동차 시장의 7%까지 늘어 연간 54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이 제공하는 보안통신 인프라를 다양한 사업자가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스마트충전, V2G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저축銀 정관변경 등 신고절차 명확하게 개정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앞으로 저축은행의 정관 변경이나 지점 이전 등 신고사항과 관련한 처리 절차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저축은행과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경우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 등을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한 뒤 서류가 수리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상 저축은행의 해산과 영업 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 신고가 면제된 저축은행의 정관·업무의 변경사항은 신고필요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유리 기자 yu115@



2020

100 PLUS FORUM

2020 메트로경제 100세 플러스 포럼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7월 15일(수) 오후 2시~5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축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세종시 국회의원)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 **기조강연**

국내외 경제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강연1**

2020 주식투자 전략과 전망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 **강연2**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강연3**

공모리츠 투자와 전망
(남궁 훈 신한리츠운용 사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 시: 7월 15일(수) 오후 2시~5시

장 소: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긱간 위기’ 대한항공 기내 사업 매각하나

이사회서 기내식·면세 매각 논의
매각할 경우 자금 1조원 확보
인수 후보 한앤컴퍼니 유력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알짜 사업인 기내식·기내판매(기내면세점) 사업부까지 매각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부의 매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유력한 인수 후보로 한앤컴퍼니 등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를 꼽고 있다. 이 같은 매각을 통해 대한항공은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해당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부의 매각뿐 아니라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의 매각도 진행해왔다. 대한항공은 크레디트스위스와 삼성증권 등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초 송현동 부지의 복층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며 공원과 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자금 확보에 제동이 걸린 대한항공이 해당 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알짜 사업부를 팔아서라도 2조원 자본 마련에 나섰다라는 말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이스타 ‘운명의 일주일’... 파산 수순 밟나

일주일내 채무 해결 사실상 불가
제주항공 인수 포기면 파산 수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발판삼아 재기를 꿈꾸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파산 위기로 내몰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인수합병 이전 선행요건의 충족을 요구한 데드라인이 8일부로 일주일 남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일(10영업일) 내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체불임금 250억원을 비롯해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등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이 같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셋다운’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불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해당 채무를 일주일 내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스타항공의 오퍼가 최후의 방편으로 꺼내들었던 ‘지분 헌납’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은 외려 체불임금 해결에도 부족한 대안이라고 맞받아쳐 M&A 무산 가능성만 더 커졌다.

실제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경

우,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전 노선의 운항 중단이 약 60일을 넘기면서 지난 5월 23일 항공운항증명(AOC)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재운항하기 위해서 안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안전 점검에는 최소 약 3주가 걸릴 예정이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재운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운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운항을 위해서는 지상조업사, 인력 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데, 최근 고려신용정보평가에서 이스타항공의 신용등급을 ‘최악’에 해당하는 CCC등급으로 책정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 융통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스타항공의 선행 요건 충족 기한이 15일까지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끝으로,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이 충족시켜야 할 선행조건만 남았다는 것.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은 선행 조건 이행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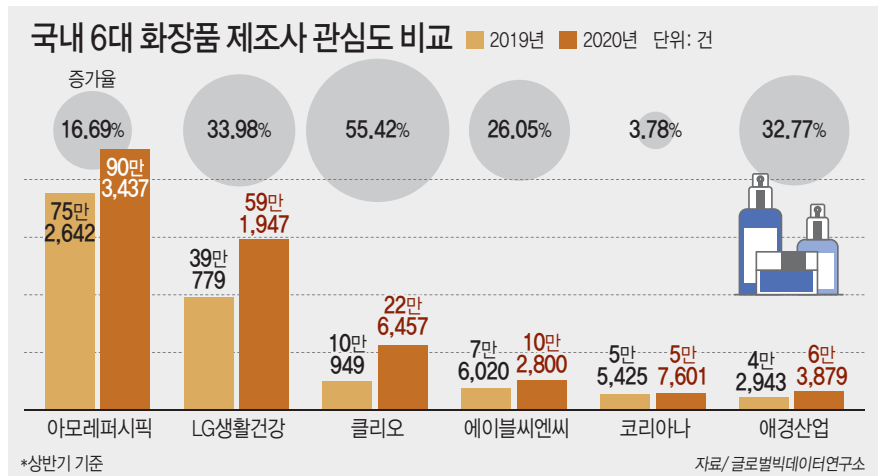
스타셋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미이행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M&A가 최종 무산될 시에도 여전히 제주항공의 책임 논란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양사의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그것(코로나19의 여파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있지 않고 다양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16일 이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이스타셋 지금 보증 문제에 대해 “증명을 보내주면 된다. 선행조건이 이행됐다고 하는 증거자료 등 최종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코로나에도 화장품 사랑은 ‘쑥쑥’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아모레퍼시픽 관심도 1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외출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국내 화장품 브랜드 중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아모레퍼시픽’이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로는 ‘클리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7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6개 국내 화장품 제조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리오, 에이블씨엔씨, 코리아나, 애경산업이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과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로 두 기간의 정보량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게시물 수(총정보량)를 의미하는 ‘관심도’는 올해 아모레퍼시픽이 90만 3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생활건강 59만 1947건, 클리오 22만 6457건, 에이블씨엔씨 10만 2800건, 코리아나 5만 7601건 순이었다. 애경산업은 6만 3879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대비 관심도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클리오로 55.42%를 기록했다. LG생활건강 33.98%, 애경산업 32.77%, 에이블씨엔씨 26.05%, 아모레퍼시픽 16.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리아나가 3.78%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현숙 빅데이터분석보도센터장은 “갑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동반경이 제한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화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한몫했다”고 풀이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버거부터 막걸리까지... “맛있는 구독 서비스”

기업, 구독 서비스 락인 효과
소비자는 가격 이득 ‘1석 2조’

편의점, 마트, 주류, 과일 등
구독경제 서비스 종류 확대



퍼밀 랜덤 과일 ‘달콤박스’ /퍼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 소비와 프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구독경제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다. 최근에는 생필품인 생수부터 커피, 술, 과일 등 종류가 다채로워졌다.

구독경제가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구독기반 비즈니스가 소비자와 공급자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구독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구독서비스로 고객 락인에 성공했다. 지난 3월 트레이더스는 첫 구독서비스로 1일 1잔의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구독권’을 선보인 결과, 3~4월 두달간 커피구독권이 4000개 이상 판매됐으며 구독권 회수율이 40%를 상회했다. 커피구독권을 구매한 고객은 한달 중 평균 12일을 트레이더스에 방문한 것으로, 2.5일에 한번씩 트레이더스에서 쇼핑을 한 셈이다.

트레이더스는 창고형 할인점 업체 특성상 고객이 1회 쇼핑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높아 월평균 2회 가량 방문해 쇼핑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커피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일반고객 대비 월평균 6배 가량 더 많이 트레이더스에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6월에는 피자 구독 서비스까지 선보였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여름을 맞아 얼음컵 구독 서비스 상품을 내놨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해 5~9월, 얼음컵이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조사됐다. 가파른 얼음컵 매출 증가세에 이마트24는 얼음컵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 얼음컵 외에도 냉장커피, 스낵 등 이마트24 자체 개발 상품(PL)을 구독할 수 있다.

이마트24 모바일 앱에서 달고나 라떼, 민생 파우치 아메리카노 2종, 민생 감자칩(45g) 등의 정기권(7일/14일)을 정상가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정기적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줄어들자 주류와 프랜차이즈 업계도 구독 경제를 통해 지속적인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버거킹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월 정액 구독 서비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매월 5000원 미만의 구독료를 내면 특정 버거를 주 1회 총 4번 제공하는데, 햄버거 한 개 가격이 1000원대인 셈으로 평소보다 한층 저렴한 가격으로 맛 볼 수 있다.

배상면주기도 흡술닷컴을 통해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막걸리를 정기 배송해 준다. 3가지 종류의 막걸리를 1주, 2주, 4주로 나눠 배송 주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인 가구를 겨냥한 과일 구독 서비스도 인기가 있다.

㈜식탁이있는삶이 운영하는 스페셜티푸드 플랫폼 퍼밀(permeal)은 과일을 소량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정기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달콤박스’를 운영 중이다.

과일은 신선식품 중에서도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과일을 다량을 구입하는 경우 빠른 시간 내 섭취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1~2인 가정의 과일 섭취를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퍼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최소 5종에서 최대 7종 종류의 과일이 소량씩 들어있는 랜덤 구성의 ‘달콤박스’를 기획했다. 주로 구성되는 과일 목록에는 딸론, 파인애플, 망고, 사인머스켓, 오렌지, 체리, 아보카도, 바나나, 사과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사정 합의 불발 아쉬워 대타협은 나라 구하는 길”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위기시 상생·협력문화 더욱 절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변화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일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온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 뒤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해고·실직자도 노조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제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노동권 강화 등 3개
전교조 사실상 합법화 절차 가능

비준안서 강제노동철폐협약 제외
“통상 리스크 해소, 국익 위한 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3개 협약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이달 2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이 올해 안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마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날 심의·의결된 비준안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건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핵심협약 중 아동노동금지과 균등대우 관련 협약 4개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ILO 회원국 187개국 중 146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핵심협약 비준안을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지위·감독자’를 제외한 5급 이상 실무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해직 교원이 참여하는 전교조도 사실상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과 상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번 비준안에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강제노동철폐’(제105호) 협약은 제외됐다. 해당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내 형벌체제와 상충한다. 우리 형벌체제는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외행위 참가 등에 대해 징역형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다.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징역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선 금고형을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지만, 경영계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노동계 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부 환경 변화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인천공항에 ‘엑스레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가동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지난 2018년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를 설치해 검색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며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의 돈육 또는 돈육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국 축산물이나 돈육 제외 축산물의 경우 100~500만원 벌금이다.

/한용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난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에 최선”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가져간 데 따라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

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부는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며 당·정·청 관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를 맞은 데 따른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당·청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영훈 기자

독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개선 시행

해수부, 성게 12.8톤 제거

해양수산부는 갯녹음으로부터 독도의 해조숲을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갯녹음은 연안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사막화’라고도 불린다.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약 322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감태, 대황 등 대형 갈조류를

포함하여 약 68종의 해조류가 독도에 서식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생물량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에서 해조류를 섭식하는 동근성게의 이상증식과 암반을 하얗게 덮는 석회조류의 확산으로 갯녹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양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해양생태계 균형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상북도(울릉군)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12.8톤의 성게를 제거하여 최근 성게 밀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용수 기자

전북대, 국립대 최초 등록금 반환 동참... 특별장학금 지급

1학기 등록금 10%, 19만6000원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부생에 반환

전남대, 군산대, 충남대 등 반환 논의

전북대가 국립대 중 처음으로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국립대학으로 등록금 반환이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수도권과 지역 등 전국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여 2학기 대면 강의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학생들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립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북대의 이번 결정이 국립대 등록금 반환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대는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학부생에게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

되돌려주는 방식의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상한액은 전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으로, 지급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이다.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대는 내달 학위를 받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총학생회와 지속해서 장학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다"라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환

블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법적·행정적 입장은 특별장학금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의 이런 결정은 국립대 간 신호탄이 됐다. 일부 국립대가 등록금 반환성 특별장학금 지급 논의에 돌입한 것. 아직 반환 결정을 한 국립대는 전북대뿐이지만,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대부분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총장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국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병서 총장은 최근 신입생과 재학생, 각 학과(부) 대표, 학생중앙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를 열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

했다.

한밭대도 전북대처럼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반환기로 사실상 결정 짓고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의 가용재원 규모가 확정되면 학생자치기구와 협의 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대도 총학 등 학생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성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등록금 반환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어떤 형식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라며 "다만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학자금 대출금리 0.15% ↓... 2학기 이자율 1.85%

교육부-한국장학재단 6개월만에 추가로 금리 인하 지연배상금률 3.85%로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지원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2.0%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0.15%포인트 추가 인하해 2학기부터는 이자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대출금리는 올해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올해 174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고,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비용이 감소해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은 1학기 4.5%에서 2학기엔 0.65%포인트 인하한 3.85%로 시행된다.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 7월9일~10월15일 14시까지, 학생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실행은 10월15일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

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호서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대표와 동문,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 /호서대

호서대, 대학혁신 상생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등록금 반환 요구 등 논의

호서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육 혁신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호서대 상생협의체는 학생대표와 동문, 교수, 직원 그리고 대학본부가 참여해 대학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 왔다.

7일 아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현황과 그간의 대응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등록금 반환 요구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오산역사 평생교육 진행

한신대는 오산역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신대 경기캠퍼스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오산시의 '평생교육 관·학협력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지원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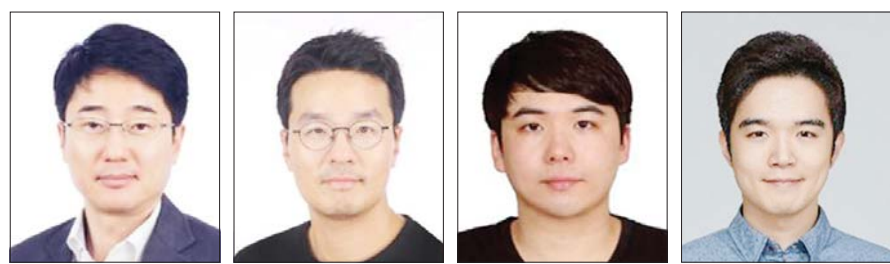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신대에서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오산시와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함께하는 오산역사 바로알기'(오산역사 바로알기), 11월 27일까지 '오산시와 한신대학교 한국사 학과가 함께하는 오산역사 기록하기'(오산역사 기록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의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 갈등과 대립,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지역의 역사적 실체를 알리고 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시민의식, 자긍심 및 평화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진 기자



차정인 박사, 21대 부산대 총장 취임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7일 오전 부산 금정구 대학내 10·16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신지영 교수 박우성 교수 고창현 교수 홍성완 교수

숙명여대 공동연구팀, 기초연구실 사업 선정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32개월 동안 12.8억 연구비 지원

숙명여대는 신지영(연구책임자)·박우성 기계시스템학부 교수와 고창현 ICT융합공학부 응용물리전공 교수, 홍성완 전자공학전공 교수팀이 '2020년 기초연구실 사업(BRL)'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은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 오는 2023년 2월까지 32개월 동안 총 12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열역학적 사이클 기반 다중가스 적응형 전기화학 에너지 변환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숙명여대 연구팀은

2단계를 거친 심사 과정을 통해 기계 분야 최종 3개 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기존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금속-다중가스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아가 열역학적 사이클과 결합하여 배터리의 충·방전 효율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연구팀은 기존 배터리 성능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배터리 시스템 연구가 차세대 전기차 및 새로운 모빌리티를 창출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총괄 책임을 맡은 신지영 교수는 "이번 기초연구실 사업 수주를 계기로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기계공학·재료공학·전자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G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롯데건설, 초록우산재단에 놀이키트 지원
롯데건설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위축된 서울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실내 놀거리 '놀이 키트'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롯데건설 임직원이 급여 일부분을 기부하면 회사에서 그 3배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봉사기금을 활용해 진행하게 됐다. 오기중 롯데건설 전무(왼쪽)와 이형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기보, 예비창업패키지 원데이 네트워킹 행사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9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선배창업자와 2020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배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창업패키지 원데이 네트워킹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네트워킹 행사가 끝난 뒤 선후배 창업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코트라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출 상담회

KOTRA(코트라)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0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코트라는 올해 비대면 화상 형태로 상담회를 개최한다.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은 대체 에너지 수요 증가와 각국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에 따라 지난 10년간 계속 성장해 왔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용 대량구

매 많은 산업 특성상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등 일부 국가 제품이 시장을 대부분 차지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20개국에서 64개 기업이 참가한다. 말레이시아, 인도, 모잠비크, 사우디, 이집트 등 각국 프로젝트 발주권을 가진 국영 전력회사도 여럿 섭외했다. 코트라는 상담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10일까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SG닷컴, 사랑의 열매 '경기 나눔명문기업' 3호 가입
SSG닷컴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이어진 기부활동을 실천하며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SSG닷컴은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김포시청에서 열린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SSG닷컴은 지난해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며 경기 지역에서는 세 번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왼쪽부터) 최은숙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병우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우정 SSG닷컴 대표이사, 정하영 김포시장, 안혜경 김포복지재단 홍보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SG닷컴

에이블씨엔씨 미샤·어퓨, '동행세일' 동참

에이블씨엔씨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한다. 에이블씨엔씨는 자사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와 어퓨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을 이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샤 1260여 개, 어퓨 570여 개 등 총 1800여 제품들을 1+

1으로 구입할 수 있다. 미샤의 베스트셀러인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가성비비 수분크림으로 유명한 '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강력한 고정력이 장점인 '4D마스카라' 등이 이번 행사에 포함됐다. 어퓨도 여러 인기 제품들을 이번 행사에 선보인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일상의 행복을 전하는 따뜻한 희망 메시지

김병호 우리자산신탁 고문
두번째 에세이 '품어야 산다'

김병호 우리자산신탁 상임고문이 두 번째 책을 내었다. '시를 사랑하는 금융인'으로 통하는 김 고문의 두 번째 에세이는 '품어야 산다'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일간지에 실었던 '경제와 세상' 칼럼을 모았다. 그가 세상을 품고 보듬으며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써 내려간 26편의 가슴 따뜻한 에세이다.

첫 번째 에세이 '봄날이었다'는 가족과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이들을 향한 '시선'과 '온기'였다. 두 번째 에세이 '품어야 산다'에선 이주민,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사람들, 장애인, 빈곤한 노인 등 사회적 이웃에게로 확장했다. 작가는 우리가 보듬고 품으며 살아가야 할 소외된 이웃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보며 부동산, 교육, 고령화, 세금, 차별과 혐오, 디지털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을 때론 부드럽게 또는 날카롭게 화두를 던져준다.

그는 "설익은 생각과 논리가 담긴 글이나마 출간의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해 준 분들이 있어 정말 고맙고 행복하다"면서 "글쓰기의 감옥"은 직장생활을 할 때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던 우리 이웃의 삶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병호 우리자산신탁 상임고문.



품어야 산다

이번 에세이는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따뜻한 동행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김 고문은 "우리 사회에는 이주민,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장애인, 빈곤한 노인 등 보듬고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평소 비교하는 삶을 거부한다. 또한 소탈하다. 권위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는 에세이를 통해 "사는 동안 아프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며 일상의 무탈함이 큰 행복임을 대다수 사람은 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큰 것을 바라고 매달리다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을 놓치지 쉽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봄날이 온다는 희망을 간직하자"고 제안했다.

책 제목과 같은 황규관 시인의 '품어야 산다'를 통해 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 강물의 물살이 지친 물새의 발목을 제 속살로 가만히 주물러주듯 다시 한번 품어보자"고.

김 고문은 경남 함천에서 태어나 마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동고를 거쳐 한국외국어대를 나왔다. 우리는 행부행장을 거쳐 코리아비바생명대표이사, 우리프라이빗에쿼티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우리자산신탁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박승덕 기자 bluesky3@metrosooul.co.kr

11번가, 지역 농축산 창업자 활로개척 돕는다

입금확인, 배송관리, 판매정산 등 청년들 창업자 맞춤 온라인 교육

커머스 포털 11번가가 온라인 화상강의를 통해 지역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1번가는 최근 입점한 '청년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11번가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6일과 7일 이틀 간 11번가 셀러존 사이트를 통해 맞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에는 ▲입금확인 ▲배송관리 ▲고객 클레임 확인 및 처리 등 11번가에서 기본적인 주문관리 방법과 ▲판매정산 및 매출/매입 확인 등 정산 업무와 관련한 라이브(Live) 교육이 진행된다. 상품등록부터 주문/정산 관리 등 온라인 판매가 처음인 청년몰 상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정 위주로 5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편성했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에



11번가가 온라인 화상강의를 통해 지역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1번가

청년 창업자들이 입점해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전국 35개 청년몰에 352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11번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지난 6월 26일 이커머스 최초로 전통시장 '청년몰' 점포가 11번가에 입점했다. 현재 74개 점포가 판매자로 등록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7월 말까지 100여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다. 11번가는 '청년몰' 판매자에게 첫달 판매수수료 약 40% 감면과 상품 등록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포장용 부자재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이색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청년몰' 상품을 알리기 위해 오는 7월 25일까지 '동행세일 전통시장 청년몰 기획전'을 진행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인사

-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장 겸 산업부장 정훈식
- ◆카이노스메드 △경영전략본부장 부사장 이재호
- ◆호서대 △학사부총장 조상섭 △사무처장 황승원 △재무처장 조대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행정본부장 손민호 △미래원천연구본부장 박경현 △경영전략부장 이인석 △슈퍼컴퓨팅기술연구센터장 박유미 △재난안전지능화융합센터장 정우석 △클라우드기반SW연구실장 강동재 △사이버브레인연구실장 원희선 △테

라헤르츠연구실장 이일민 △경영기획실장 김재호

부음

- ▲김상식씨 별세, 인복씨 남편상, 김미형(초등학교 교사)-리원(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나나(특수학교 교사)씨 부친상, 이귀원(연합뉴스 뉴욕특파원)-문제근(육군 중령)씨 장인상, 이상미(한국국제협력단 과장)씨 시부상=7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20분. 02-3010-241

▲박만수씨 별세, 박희준(글로벌이코노믹 편집국장-상무)씨 부친상 =7일 오전, 남구미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일 오전 9시. 054-719-0044

▲황문한씨 별세, 김연옥씨 남편상, 황경상(경향신문 콘텐츠전략팀장)씨 부친상, 임아영(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씨 시부상 =7일 오전 1시15분, 구미강동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54-473-9650

▲이인봉씨 별세, 이상철(SBS 전략기획실 미디어사업팀 부장)씨 부친상 =7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9일. 010-8740-7415

담배연기 없는 미래가 비전 ‘전자담배’ 집중·지속 투자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회사역량 아이코스·히츠에 투입”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가 7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담배연기 없는 미래” 비전을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백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개최한 웹 컨퍼런스에서 “한국필립모리스 비전인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도 경영’을 하겠다”며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3년간 총력을 기울여 온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기조 변화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과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아이코스’와 ‘히츠’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10여년간 비연소 제품 분야에 8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그 결과 전세계 53개국에서 궤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가 출시됐다”며 “연기 없는 담배 제품이 궁극적으로 일반담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회사의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백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1분

기 아이코스 전용 담배인 히츠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성장한 사실과 아·태평양 지역 유일한 히츠 생산기지 양산 공장에 이미 3천억원을 투자한 당사의 미래 전략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백 대표는 신입 대표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수행할 사안으로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특히 ‘비연소 제품 시장의 성장 견인’에 주목했다. 그는 연소 담배 시대를 종식하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흡연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당사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

학적 사실에 기반한 차별적 규제를 제시해야 하고, 사회 전반에서도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 담배시장의 동향을 보면 가장 해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인 일반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궤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전자담배 시장 안에서 아이코스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담배 시장에서 비연소 제품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급처럼 과학과 검증, 안전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으로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대표는 경쟁사의 비연소 제품 출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쟁사가 궤련형 전자담배 분야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저희는 환영한다”며 “비연소 제품 분야에 다른 회사들도 동참하는 것이 ‘담배연기 없는 미래’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신세계 센텀시티 아트페어

/신세계백화점

지역 아티스트 상생 ‘신세계 아트페어’

한달간 3개지점 순차 진행

신세계백화점이 7월 한 달 동안 지역 아티스트들을 위한 상생 플랫폼으로 변신한다. 길어지는 집콕으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요즘,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예술작품으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세계 아트페어 ‘동행, 예술가와 함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미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미술 전시다. 힘든 시기를 보내

는 지역 예술가와 미술 작품을 유통하는 지역 화랑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신세계 센텀시티, 광주, 대구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예술가들은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다.

각 점포에서는 화랑들과 연계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대표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까지 돕는다. 그간 실제 작품을 만나기 어려웠던 관객들은 물론, 소통에 목말랐던 예술가 모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다. /신원선 기자

SPC삼립, 美 샌드위치 ‘에그슬럿’ 오픈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1호점

SPC삼립이 제2의 쇠떡버거를 만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물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슬럿(Eggslut)’ 국내 1호점을 오픈하며 푸드 사업 강화에 나선 것.

SPC그룹의 계열사 SPC삼립은 10일 오전 10시 스타필드 코엑스몰 밀레니엄 광장에 에그슬럿 1호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에그슬럿은 파인다이닝 출신 셰프가 달걀과 최상급 식재료를 이용해 ‘슬로우 미학’을 선보이며 요리의 영역에서 에그샌드위치를 예술화시킨 파인캐주얼 브랜드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 쿠웨이트, 일본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측은 삼성동 코엑스에 1호점을 오픈한 이유에 대해 “강남이 서울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그슬럿이 아침 조식 메뉴로 적당한데, 코엑스에는 출근길 유동인구가 몰려 있으며 쇼핑물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시설이 몰려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에그슬럿 페어팩스, 슬럿, 오렌지주스.

/조효정 기자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버추얼 론칭 영상에서 SPC삼립 황중현 대표이사는 “에그슬럿 도입을 통해 외식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파인캐주얼(Fine-casual)’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SPC삼립의 식품 사업과의 시너지, 브랜드 경영, 글로벌 사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에그슬럿의 싱가포르 사업 운영권도 획득한 SPC삼립은 세계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글로벌 식품회사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국내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5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

/조효정·원은미 기자 princess@

유통단신

롯데칠성음료 ‘마스터 토닉워터’ 2종

롯데칠성음료가 여러 종류의 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드링크 믹서 신제품 ‘마스터 토닉워터’ 2종(사진)을 7일 새롭게 선보였다. 마스터 토닉워터는 토닉 특유의 씩씩한 맛과 단맛, 과일향을 정교하게 배합한 제품으로, 소주와 섞어 ‘소토닉(소주+토닉워터)’으로 마시면 최고의 조합을 즐길 수 있다. 마스터 토닉워터 제로는 당분은 빼고 풍부한 레몬향을 더했다. /조효정 기자



오리온 초코파이 티라미수 출시

오리온이 ‘디저트 초코파이 티라미수(사진)’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노우 마시멜로 안에 고소한 카망베르 치즈를 더하고, 초콜릿 코팅 위엔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 티라미수의 풍미를 극대화했다. 특히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초코파이 비스킷을 디카페인 콜드브루에 적셔 완성했다. 그럼당 가격을 기존 대비 18%가량 인하하며 가성비도 높였다. /원은미 기자



홈플러스 “외화동전 현금으로 적립하세요”

강서·목동 등 5개 매장서 서비스
20국 화폐 ‘버디코인 포인트’ 적립

해외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화 동전은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많지 않아 짐이 되기 일쑤였다. 이제 대형마트를 방문하면 외화 동전을 손쉽게 현금처럼 적립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핀테크 스타트업 ‘우디’와 함께 서울 강서점, 목동점, 영등포점, 잠실점, 중계점 등 5개 매장에서 ‘무인 환전·외화 적립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우디의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서비스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버디코인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20개국의 화폐를 적립할 수 있으며 해당 포인트는 모바일 앱 ‘버디코인’에서 각종 모



7일 모델들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무인 환전·외화 적립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특히 외화 동전의 경우 그동안 일부 은행 특정 지점에서만 환전이 가능했는데, 이번 서비스로 직접 해당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지돼 있던 외화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서비스는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환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키오스크에 현금을 넣으면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즉시 환전이 가능하며 ‘버디코인’ 앱에서 예약 및 계좌이체를 미리 마칠 경우에는 키오스크에서 신청한 외화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대상 화폐는 달러(미국), 엔(일본), 유로(유럽)를 비롯해 11개국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베트남 현지 GS25 매출 고공행진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효과 확산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효과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대되고 있다.

편의점 GS25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진출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베트남 GS25의 최근 2주간(6월 23일~7월 6일) 매출이 전월 같은 기간 대비 30.5% 신장했다.

GS25가 제작 지원을 맡은 편의점 샛별이가 글로벌 OTT플랫폼 아이치이(iQIYI)를 통해 베트남에서 방영됨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으며 드라마 주요 배경이 되는 GS25를 방문하는 베트남 현지 고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GS25가 방문 인증 사진을 남겨 리뷰 북새통을 이루는 현지 고객을 위

해, 매장 입구에 특별 설치한 편의점 샛별이 기념 촬영 부스는 베트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을 정도다.

베트남 GS25는 인증 사진을 위해 방문하는 신규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베스트 인증 사진을 게시하는 고객을 선발해 ▲편의점 샛별이 주인공 지창욱씨가 직접 사인(sign)한 유니폼, ▲편의점 샛별이 공식 포스터 등 편의점 샛별이 관련 경품을 지급하는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 /신원선 기자

‘만두 종주국’ 중국서... CJ·풀무원, HMR로 K푸드 열풍

비비고 왕교자 만두시장 점유 1위
풀무원 현지법인 흑자전환 성공

K푸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만두·두부가 종주국인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력과 유통망 및 온라인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비비고 왕교자가 만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풀무원 현지법인 푸메이 푸어식품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억 원, 영업이익률 6.6%를 기록하며 중국 진출 10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코로나가 가져온 기회...‘이커머스’ 가속화

특히 중국에도 비대면 문화가 널리지면서 한국 식품기업이 온라인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이후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여한 풀무원



중국 현지에서 판매 중 비비고 만두 /CJ제일제당

중국 소비문화는 국내와 비슷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중국 온라인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비대면 산업 시장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약 7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중국 온라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18개월 만에 온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13배 성장했다. 중국 내 CJ제일제당의 만두 매출

은 2015년 90억에서 지난해 1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비비고왕교자’는 중국 2위 온라인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의 교자/완탕 카테고리에서 4월(31%)과 5월(33%)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풀무원의 경우 이커머스와 O2O(Online to Offline) 매출이 동기 대비 173%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개별 품목으로는 주력인 파스타와 두부가 각각 180%, 61% 성장했다. 2010년 중국 진출 당시 중국 식품유통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커머스와 O2O 같은 신유통이 중국 식품유통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10년 전 중국 식품유통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이 강세였지만 풀무원은 과감하게 이커머스와 신유통에 집중했다.

◆차별화+현지화

온라인 상거래 증가도 요인이 됐지만 K푸드의 인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화된 맛과 품질에 있다.

중국식 만두는 피가 두껍고 만두소를

같이 넣어 씹는 맛이 약하다. 반면 비비고 왕교자는 피가 얇고 쫄깃한 식감에 고기와 야채를 갈지 않고 굵게 썰어 넣어 원물 그대로의 씹는 맛과 육즙이 특징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차별점을 느껴 선호한다는 것. 또한 중국에서 만두는 ‘건강하진 않지만 편리한 음식’이란 인식이 강하다. 그에 비해 비비고 만두는 상대적으로 야채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비고의 높은 품질 관리와 중국내 ‘한국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더해졌다.

풀무원은 현지화로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인 물포장 두부보다 가공두부를 즐겨 먹는 중국 소비자를 고려했다. 두부를 얇게 썰 수분을 뺀 포두부 생산 시설을 현지에 완비한 것.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 전역 두부 공급망을 갖춘 풀무원은 지난해 11월 북경 두부공장에 ‘가공두부’ 설비를 완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호이스타정’, 코로나 치료 도전

대웅제약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안전성 인정받아 임상 2상 진입

대웅제약은 만성 위장염 및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을 승인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자체 생산해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개발 시기가 오래 걸리는 독성 등의 안전성 데이터를 인정받아 1상 시험 없이 곧바로 2상에 빠르게 진입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경증 또는 중증증의 코로나19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카모스타트를 최대 14일간 투여하여 위약군 대비 바이러스 소실까지의 기간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임상승인 즉시 임상을 개시해 신속하게 대상자 모집 및 투약을 진행해 효과를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이다.

‘카모스타트’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셀(Cell)’에 독일 괴팅겐 라이프니츠 영장류 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효과를 게재해 주목 받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카모스타트’가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에 필요한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억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내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대웅제약은 현재 동물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의 코로나19치료제 ‘DWRX 2003’의 임상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CGV에서 선보이는 영화

빅데이터가 엄선한 ‘CGV 영화 기획전’

머신러닝기법으로 추천작 선별

CGV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빅데이터 영화 추천’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CGV는 영화 콘텐츠 정보와 CGV 관객 특성을 비롯해 개봉 당시 관객수, 만족도 등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와 머신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장르별 재개봉 추천작들을 엄선했다.

상영작으로는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공포 영화 ‘갯 아웃’, 액션 영화 ‘월요일이 사라졌다’가 선정됐다. 개봉 당시 인기를 얻은 영화를 6000원에 관

람할 수 있는 기회다.

‘맘마미아!?’는 소피가 엄마 도나의 찬란했던 추억을 통해 홀로서기를 배워가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뮤지컬 영화다. ‘갯 아웃’은 흑인 남성 크리스가 주말을 맞아 연인인 백인 여자친구 로즈의 부모 집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다. 마지막으로 액션 영화 부문에 선정된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오직 1가구 1자녀만 허락된 인구 통제 사회에서 한 명의 삶을 공유하는 일곱 쌍둥이의 이야기를 담아내 눈길을 끈 작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국내 첫 모체태아의학 연구

대한모체태아 의학회의 조산연구회에서 국내 최초로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게스테론 사용에 있어 근주와 질투여의 효과 비교, 평가를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제하의 논문으로 이 논문은 SCI급 영국 국제산부인과 학술지 최신호에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석주 교수가 제1저자로,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사진)가 주저자(연구 책임자)로 참여했다. /이세경 기자



종근당, 정제사이즈 최소 ‘치주질환치료제’

잇몸 염증 저항력 강화

종근당은 복약편의성이 개선된 치주질환 치료제 ‘이튼큐 플러스(사진)’를 7일 출시했다.

이튼큐 플러스는 옥수수불검화정량 추출물 단일제제인 이튼큐에 후박추출물을 추가한 생약 성분의 복합제다. 주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치주인대의 재생을 도와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치조골을 재건시켜 잇몸속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 후박추출물은 치주질환의 원인균에 대한 항균효과와 항염효과가 우수해 잇몸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제품은 장기 복용에도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 치료제로 안전성이 입



증됐다. 종근당이 독자개발한 정제 축소기술 iLET 특허공법을 적용해 현재 출시되어 있는 동일성분 제품 중 정제 사이즈를 가장 작게 줄임으로써 다수의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중장년층환자의 복약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복약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이튼큐 플러스가 치주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생존 위한 자구안”... 김완식, 비상경영 돌입

(이랜드이츠 대표이사)

코로나 장기화, 추가적 조치

외식 브랜드 자연별곡·수사·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이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상경영 돌입 및 사업 전략 개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김완식 이랜드이츠 대표이사(사진)는 이날 오전 비상경영 돌입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외식사업부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이랜드이츠는 지난 3월부터 대표이사는 급여 50%, 임원은 30%, 조직장은 직책 수당을 반납하는 등 노력을 기울



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표는 “전년 대비 매출 -40%라는 상황이 계속되며 적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자구안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브랜드 전략 재정비 ▲비용 통제 ▲신규 투자 자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유한양행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확대

유한양행이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확대에 나선다. 유한양행은 최근 눈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인 ‘유한 루테인시아잔틴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필두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출시된 ‘유한 루테인시아잔틴플러스’에는 루테인시아잔틴 복합추출물에 노근(갈대 뿌리)과 다슬기, 모과, 포도씨유, 비타민B12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황반 색소 밀도를 증가시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가진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했다. /이세경 기자



코웨이, 국제표준·품질환경 분야 인증 갱신

20년 넘게 ISO 9001·14001 인증



코웨이는 독일계 시험인증기관인 TÜV SUD코리아로부터 ISO 9001, 14001 인증을 갱신·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TÜV SUD는 150년 이상의 역사와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이다.

코웨이는 지난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ISO 9001, 14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20년 넘게 재인증에 성공하며 품질 및 환경 경영 수준을 높여왔다.

ISO9001,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제정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규격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때 품질과 환경경영시스템이 규격 요구 조건에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한다.

코웨이는 '신제품 품질 검증체계'를 바탕으로 신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신뢰성 및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 시험 규격을 구축해 제품이나 부품의 문제

점을 찾아내는 검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코웨이는 친환경 사업장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LED,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고효율 설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웨이 정선용 TQA 센터장은 "코웨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과 검증을 위해서 신뢰성, 안전성, 환경성 검증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 인증, 화학물질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올해 대입 누구에게 유리할까



기지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지난 6월 9일 '대학별 대입전형 방식의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많은 걸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재학생도 적지 않을 듯 하다.

서울대를 포함해 국내 20개 대학들이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2개월여 앞두고 전형 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3 재학생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주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출결과 봉사 등 교과 외 영역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입전형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는 대신, 학교 수업이 사실상 파행 운영된 점을 감안해 정성평가에서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더구나 대다수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재학생들의 고충을 서류평가와 면접 등에서 감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교육부장관과 차관이 여러 차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3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한 것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 교육부가 고3 민심을 살피는 와중에도 4년제 대학

사실 코로나19로 재학생 못지 않게 재수생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러 차례 학원과 독서실 등이 문을 닫으면서 학교 교실 수업뿐 아니라 학원 수업도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로 입시에서 누가 더 불리해지고 유리해질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더 노력한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재수생에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최근 10년간 수능 난이도에 따른 재수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출제된 경우 오히려 재수생이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고, 시험 난이도와 재수생 유불리는 불규칙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선불리 이것저것 해 주겠다고 하기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hys@

동원F&B, 必환경 경영... 친환경 캠페인 '에코챌린지'

플라스틱 166t 감축·친환경 포장재 사용



동원F&B가 전사적 친환경 캠페인 '에코챌린지'를 통해 이달부터 필(必)환경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에코챌린지'는 '5R(Reduce, Replace, Redesign, Recycle, Restart)'의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실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전사적 경영방침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는 동원F&B의 사내 캠페인이다. 임직원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각 사업부별 사업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늘린다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내 프로젝트가 주축이 돼 시작됐다.

동원F&B는 유가공, 상온 HMR, 냉동식품 등 자사에서 생산하는 식품 전반의 포장재를 줄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연간 감축 목표는 플라스틱 166t, 종이 211t으로 각각 500ml 생수병 1100만개, A4 용지 4200만장에 달하는 양이다. 포장재 개별 제품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하는 등의 전략으로 전체 사업부가 동참해 경영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동원F&B는 지난 3월 출시한 국내 최초의 열린 샘플 보냉재 '동원샘물 프레쉬'의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동원샘물 프레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아이스팩과 달리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얼려 보냉재로 활용하게 한 제품이다.

동원샘물 페트병은 플라스틱 저장화를 지속해 페트병의 무게를 12.9% 줄였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 측정 기준으로 연간 소나무 837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이런 노력 덕분에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원미미 기자 silverbeauty@

오늘의 운세 7월 8일 (음 5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일의 마무리를 끝까지 완수. **48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60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2년생** 공과 사를 올바르게 구분. **84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발걸음 가늠이 빠진 사람이 없다.
- 37년생** 투자나 매매는 불리하니 다음 기회에. **49년생**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있다. **61년생** 이혼이 결국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73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85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 38년생** 고집을 부리면 가족도 외면하게 된다. **50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 **62년생**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시작. **74년생** 더도 말고 오물만 같으면 좋겠다. **86년생** 급하게 서둘러서 후회가 막급이다.
- 39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51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해라. **63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75년생** 재워와 불화는 대화로 풀려라. **87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
- 40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는 천천히 쟁겨라. **52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 **64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76년생** 두루 베꼈던 일이 손조롭게 해결. **88년생** 부드러움 보다 강하게 나가야.
- 41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53년생**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라. **65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 **77년생** 직장에 변동수가 있으니 마음을 다잡을 때. **89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능력도 최고조라 행복.

- 42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 **54년생** 치과진료는 늦추지 말고 바로 받아라. **66년생**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라. **78년생** 상사의 뜻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지 마라. **90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가 성공.
- 43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잘 해결. **55년생** 모든 일은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79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91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 44년생** 외출을 하면 행운이 따른다. **56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6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잘못하면 망신 수. **80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하라. **92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 45년생** 막혔던 구멍이 뚫리는 날. **57년생** 금전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있다. **69년생** 자고 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 **81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 원하던 것을 이루어낸다. **93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
- 46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58년생** 된다. 된다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70년생**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82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을 본다. **94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신중하게.
- 47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유리한 쪽으로 행동. **59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7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3년생** 양보다 질을 따져보고 결정. **95년생** 지출이 많으니 재할용으로 아껴라.



김상희의四季

출입문과 재물

사업을 시작하며 사무실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곤 한다. 일이 잘 풀리고 재물이 가득 들어오길 고대한다. 발복하는 운세를 이끌어 와야 한다.

사무실을 내면 우선 신경 쓰는 것이 인테리어이다. 일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안하게 공간을 꾸민다. 의자와 책상도 좋은 것으로 들여놓는다. 일하는 공간에 따라 업무 능력이 달라지니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공간을 구성할 때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사무실 출입문 위치가 그것이다.

운을 끌어오는 풍수를 생각한다면 출입문의 위치와 방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무실 출입문의 위치는 문으로 들어올 때 내부가 가장 넓게 보이는 위치를 택하는 게 좋다. 북도로 나가는 중앙보다 귀퉁이 부분에 출입문이 있으면 사무실이 더 넓게 보인다.

문이 사무실 쪽보다 바깥쪽으로 열리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출입문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달라져야 하는 게 경영자 책상 위치이다. 책상 배치는 오행의 상생 구도를 따르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이 순환되어 길하다. 반면 출입문이 동쪽에 있는데 경영자 책상을 서쪽으로 하면 오행이 상극의 관계가 된다.

이런 배치는 죽은 땅이 되는 격으로 제품을 팔 때 난관을 만난다. 북쪽에 출입문이 있고 동쪽으로 책상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물에 의해 흙이 쓸려 내려가는 오행의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많은 자금을 들여 사업을 벌이는 건 더 큰 재물을 벌어들이고 흥하는 게 목표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흥망이 달린 일이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소소한 풍수의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3			6	9		8
	1	5		7		
			1	4	2	
	2			8		3
	8					1
6			7			2
		7	5	3		
			9		4	5
9		8	2			6

8		A	9	3	5		2	1	
7				4	8			5	
		C	6				9		
	A	3		B			1		C
5	4	A			9	8		3	
9			2				5	7	4
2	8	6				C		B	
C		9	3			1	A	8	
4		B			2	7		9	
			8			3	6		
3			4	5				9	
4	1		C	A	7	B		5	

9	L	E	Z	L	8	7	6	S
Z	S	7	9	Z	6	8	E	L
8	6	L	E	7	S	L	9	Z
7	Z	8	L	E	Z	6	S	9
L	L	6	S	7	Z	E	8	7
E	9	S	8	6	7	L	Z	L
S	E	Z	7	8	L	9	Z	6
6	7	9	Z	Z	E	S	L	8
L	8	Z	6	S	9	Z	7	E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6호

토종 커피기계 동구전자 “수입산 커피머신 비켜” 전자동 머신으로 글로벌 도전장

카페 등 업소용 ‘티타임’ 출시
1잔 추출하는데 30초면 충분
수입산 반값... “가격 경쟁력”



동구전자가 외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야심 차게 선보인 전자동 커피머신 ‘티타임’.

대한민국 커피 기계의 원조인 동구전자가 전자동 커피머신을 통해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커피머신 브랜드 회사들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1대당 2000만~3000만원 하는 이들 값비싼 외산 기계에 비해 가격은 절반 이상 낮추고, 기존의 반자동 머신이 갖고 있던 단점을 극복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91년도 설립, 토종 브랜드로 30년 가까이 커피 머신의 외길을 달려온 동구전자의 이번 신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커피숍 등을 창업하려는 수요자들의 접근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용 절감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동구전자는 수입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업소용 등 기존의 반자동 커피머신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동 커피머신 ‘티타임’을 개발해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이 제품은 업소용뿐 아니라 일반 회사의 사내카페를 비롯해 관공서, 은행, 병원, 편의점 등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

업계에 따르면 업소용 외산 반자동 커피머신에서 커피 1잔이 추출돼 나오는 시간은 통상 1분30초 정도다. 하지만 거품을 내는 스티머, 온수기, 에스프레소 추출기를 모두 갖춰 외산 제품과 기능이 같은 동구전자의 티타임은 1잔

당 30초 정도면 충분하다. 동구전자 관계자는 “기존 반자동 커피머신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작동법이 복잡해 직원들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만드는 사람마다 커피맛이 다른 등 일관성이 없다는 단점”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 출시하는 전자동 커피머신 티타임은 기존 외산 제품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데다,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낮춰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제품은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는 추출기인 ‘브로맥’을 뺀다 붙였다 하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돼 더욱 위생적이다. 대부분의 업소용 외산 커피머신은 브로맥을 착탈할 수 없어 청소시엔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전자는 이 기술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허를 인정받는 특허협력조약(PCT)에도 특허를 출원, 글로벌 커피머신 회사들의 대응에 만반의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다.

박원찬 동구전자 회장은 “수입 머신은 가격이 너무 비싸 커피숍 창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컸었다”면서 “30년 가까운 기술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신제품이 코로나19 때문



박원찬 동구전자 대표(왼쪽)가 성남에 있는 본사 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에 가뜰이나 힘들어하는 분들의 자립을 돕는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회장이 91년 당시 설립한 동구전자는 93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이컴 방식의 전자동 커피서비스 제품을 개발했다. 음식점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티타임’은 동구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소위 ‘다방커피’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 티타임은 지금까지 100만대가 넘게 팔려나갔다.

이후 2001년엔 페이퍼 필터방식의 원두커피머신, 2008년에는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을 각각 개발해 선보이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커피머신 중추국 틈새에서 국산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동구전자의 커피머신은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29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인스턴트 커피머신에서 시작해 원두커피 머신, 그리고 전자동 커피머신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 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경제의 방위사업체’라는 생각이 든다”며 활짝 웃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아마존과 손잡고 스타트업 육성

‘정글 프로그램’으로 30개사 지원

글로벌기업 아마존 계열인 아마존웹서비스가 국내 스타트업 육성에 동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을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정글 프로그램’을 만들고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정글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e커머

스·핀테크·스마트 물류, 인공지능(AI) 분야 등의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지원규모는 30개사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선 중기부가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 후속 R&D 자금을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본사 전문가와 분야별 1대1 매칭 컨설팅,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용 지원, 아마존닷컴 등과 연계한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5일 트위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글과 협업한 ‘창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타트업들에게 기술·시장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 60곳이던 창구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올해 들어 80곳까지 늘어났다. /김승호 기자

타다 프리미엄, 1주년 기념 반값 혜택

선착순 회원 1000명 대상

타다가 준고급 이동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타다는 오는 8일 낮 12시 타다 앱에 접속하는 선착순 회원 1000명에게 타다 프리미엄 5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다. 해당 쿠폰은 2주 이내 사용 가능하며, 타다 프리미엄 이용료 50%를 조건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오랜만에 앱에 접속하거나 타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10% 할인 웰컴 쿠폰도 증정한다.

최근에는 차량을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랜덤 업그레이드 배차’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타

다 프리미엄을 호출하면 세단이 아닌 카니발 하이리무진 모델이 무작위로 배차되는 방식이다. 차량 내에는 생수와 할인 쿠폰도 제공되며,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ETRI, AI 전문가 본격 양성

아마존웹서비스·엔비디아와 맞선
인공지능 아카데미 교육 과정 개설

정부출연연구원이 제4차 산업혁명 및 지능화 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계 학습 및 AI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엔비디아(NVIDIA) 코리아 및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와 공동으로 AI 교육과정을 개설해 AI 아카데미 원내 교육을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엔비디아-딥러닝 인스티튜트(DLI)의 영상처리분야 과정을 시작으로 8월에는 AWS의 AI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계학습 과정 등을 개설해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ETRI-AI아카데미는 연구원 내 AI 관련 연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인력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AI 분야 핵심연구개발 역량과 AI를 이용한 산업특화 활용역량 강화 등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카데미는 직무별 학습경로를 바탕으로

로 전략, 기초·공통, 전문, 심화, 고급 과정 등 5개 과정의 교육체계에 구성되며,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교육, 팀 프로젝트형 실무중심 원내교육 등도 운영된다.

연구원은 지난달 1일 운영전담부서인 AI전문인력양성실을 꾸리고 내·외부 위원으로 교육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AI 분야 국내·외 온라인 교육과정도 병행해 제공한다. 특히, AI 전담교육장을 새롭게 정비,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와 같은 AI 교육용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 팀프로젝트 심화과정의 교육 효율성 및 학습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AI아카데미는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 타 연구기관이나 공공 및 유관기관 등에 AI 활용역량 지원을 위해 교육플랫폼을 개방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및 대경권, 호남권 등 ETRI 지역연구센터와도 연계한 지역산업특화 AI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AI 리걸테크’ 코메이크, 시드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 코메이크가 액트너랩과 미스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코메이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계약서 서명, 보관, 관리가 가능하며 AI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과 검토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I가 자동으로 조항별 적정성에 대해 분석해주고 적절한 조항내용을 제시해준다. 현재 이 서비스는 베타테스트 중이며, 7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은 비대면 계약으로 기존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하면 PC는 물론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명등록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체결된 계약서는 미국 요세미티X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 코메이크가 액트너랩과 미스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코메이크

코메이크의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면 계약서를 완성해주는 서비스다. 날짜, 당사자, 핵심 계약 내용, 비밀정보 범위 등 계약 조건을 채워 넣으면 법률 용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계약서가 완성된다. 완성된 계약서는 상대방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돼 곧바로 계약 검토 및 체결 과정으로 연결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중진공,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 권역별 현지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7일 밝혔다.

해외시장 정보부족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현지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조사한 생생한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중진공은 현재 16개국에 걸쳐 25곳의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소비행태나 코로나 19 이후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자전거

열풍이 일어난 이유,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관심을 끄는 이유에 대한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인터뷰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게시했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과 현지 동향 등을 비롯해 대륙별·지역별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국가별 유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도 엿볼 수 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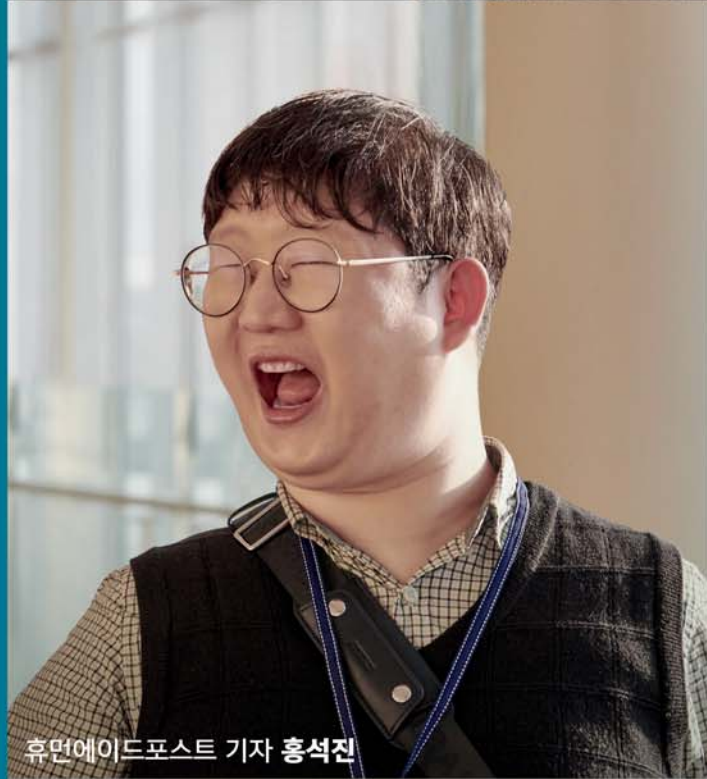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운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남도장터, 초고속 성장... 매출 300억 전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전남도 '남도장터' 매출 집계 상반기 매출액 135억 달성 유통채널 다각화·홍보 주효



남도장터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

/전남도청

전남도가 운영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상반기 매출 집계 결과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한 13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다가올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준비에 대응해 심혈을 기울일 경우 올해 매출액 총 3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매출액 12억 3000만원 보다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종합몰 등 27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채널을 다각화하고, 코로나19 농가 돕기 관측·홍보 행사 등을 통해 '남도장터'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기에 가능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함께 제2차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내 학생·학부모 19만명에게 1인당 4만원의 남

도장터 포인트를 지급한 방식의 마케팅 등으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해 중대형급 쇼핑몰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경호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며 "안정적인 남도장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정보화마을, 농촌융복합기업 등 별도 카테고리를 개설해 농어민과 함께 소상공인의 판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올해 6월말 기준 전남 소재 907개 업체가 입점해 8535개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5만명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동네방네



부산시와 휴앤쇼핑이 MOU를 맺고 비수도권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에 컨택센터를 짓기로 했다. 사진은 휴앤쇼핑 본사 전경. /휴앤쇼핑

휴앤쇼핑-부산시 非수도권 최초 컨택센터 신설

휴앤쇼핑이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부산에 컨택센터를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는 물론 신규 인력 300명 가량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오는 8일 시청에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김기문 휴앤쇼핑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앤쇼핑 컨택센터 부산 신설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휴앤쇼핑은 이번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는 처음으로 부산에 컨택센터를 새로 짓고 300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주시, 예비-명품강소기업 육성

알앤스, 21세기 메디칼 등 8곳 사업 연계·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7일 차세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제4기 예비-명품강소기업'으로 지역 유망중소기업 8곳을 선정했다.

이들 신규 기업은 알앤스, 21세기 메디칼, 대산정보기술 등 3곳이고, 재 지정된 기업은 솔락, 케이씨엘피, 아이넷, 에이치디티, 에코비 등 5곳이다.

예비-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기업성장 사다리 중 첫 단계다.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으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성장을 위해 연

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기업 성장목표와 성장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한층 높아진 기술력으로 성장을 위한 체계를 다잡아 기업성장 사다리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광주시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4개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기관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와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은 물론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의 명품강소기업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성장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인 지역스타기업 46곳,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선도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 32곳,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6곳이 각각 선정되는 등 기업 성장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자가격리자 관리센터 가동

광주 북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7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격리자들에게 전화해 지침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시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시책 발굴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6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민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김포시만의 혁신시책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력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공모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30일까지로 김포시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일자리, 소상공인, 관광산업, 취약계층, 농업인 등 전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김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터넷(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정장선, 쌍용차 정상화 '대정부 건의'

(평택시장)

대통령·장관·은행 등 건의문 발송

정장선 평택시장(사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게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쌍용자동차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측에서는 복지 축소와 임금납부, 근무시간 조정을, 회사측에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노사 양측의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자구책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쌍용자동차 직원 5천여 명과 협력업체 포함 1만여 명은 또다시 2009년의 악몽을 꾸지 않을까 불안에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만이 쌍용자동차가 조기 정상화를 이룰 수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경북교육청, 미래 핵심기술 중점 교육 실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 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경북도교육청은 7일 중학생들에게 지능 정보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실감형미디어(VR, AR)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이들 교육과정을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12개 중학교를 선정해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미래 핵심 기술 교육 중점학교'는 2학기부터 자유학년제의 주제



경북교육청, AI, 빅데이터, IoT, VR, AR 교육 본격 시작한다. (지난해 8월 초등학교 S W교육 캠프) /경북교육청

선택 활동 시간에 인공지능(AI) 챗봇 만들기,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한 영어 수업,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팜 만들기,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나의 미술관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카드수수료 지급 지원대상 확대

안동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만 지원했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만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예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군민 1인당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31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전남도 내년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전남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평화 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대중평화회의는 내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목포시 등 전남도에서 20여개국 20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다.

각국 지도자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내외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세계 지도자회의 등 다양한 회의와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보행권 회복, 상인생존권 보장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추진

서울시, 이달말 3개 시범사업 완료
"상인·시민 공존 상생모델 거듭"

오랜 세월 시민이 지나다니는 보도를 차지해 거리를 비좁게 만든 무허가 노점들이 서울시의 제도적인 관리로 점차 정비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상인 생존권 보장을 함께 고려해 지난해 도입한 '거리가게(노점) 허가제'를 전 차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이달말 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의 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총 5개 시범사업 중 3개 사업이 완료된다.

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 약 1.2km 구간에는 그동안 100여개 노점이 제각기 다른 규격으로 난립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곳은 주변의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과 명소로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지만, 보행 인구에 비해 보도 폭이 좁고 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 노점들로 인해 혼잡이 극심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노점들은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상권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노

점 21개소의 판매대 교체와 보도·조경 정비가 이뤄졌으며, 작년에는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 영종로 노점들도 정비됐다.

중랑구(태릉시장)와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밖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 등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해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인과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식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참석한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 제29회 도로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주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 연장

시설관리공단, 10곳 2시간 무료주차

과주시시설관리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차장 이용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연장에 대한 시민 반응이 긍정적이다.

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과주시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를 입차 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시간을 연장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무료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차량은 약 29만8000대, 주차 감면 금액은 약 5억 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모씨는 "코로나19로 통일시장 납품량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물건을 납품할 때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시간을 연장한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하다. 모두 함께하여 어려운 이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단은 주차장 무료이용 시간 연장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하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과주=안성기 기자 ask9990@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2704곳 긴급점검

서울시, 안산 식중독사태 발생에
2인1조 10개 특별점검반 구성

지난달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시설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유치원(566곳)과 어린이집(2138곳) 내 급식시설 총 2704곳을 전수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유치원은 각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점검

한다. 또 시 차원에서 별도로 2인 1조로 10개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급식 인원이 140명 이상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아동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 보존식 보관 시간 준수(144시간)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

리 여부 ▲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매일 2회 이상) ▲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소독(매일 1회 이상) 등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황금바늘: 한국의 자수예술' 특별전.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美 오하이오주서 한국 자수예술 특별전

서울시, 10월25일까지 전시 진행

서울시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미술관 직물전시실에서 '황금바늘: 한국의 자수예술'(Gold Needles: Embroidery Arts from Korea)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선시대 직물공예를 제작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재개관한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 전시는 원래 지난 3월 8일 개막했

으나 코로나19로 클리블랜드미술관이 휴관하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이 전시는 작은 골무와 보자기부터 대형 자수병풍까지 18~19세기 조선시대 여성들이 만든 직물 공예 70점을 통해 그들의 창작 활동에 담긴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맥락을 되짚어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시품 중 64점이 서울공예박물관 소장품이며, 2년 전 타계한 한국자수박물관 허동화 관장이 서울공예박물관에 기증한 컬렉션이 중심이다.

김현정 기자

탄소중립 실천연대 발족 서울 등 80개 지자체 참여

서울시는 7일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코엑스 아셈블룸홀에서 서울시를 포함해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이다. 현재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가입의사를 밝혀 동참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표(광역)를 맡는다.

중앙정부(환경부)가 전폭 지지하고 광역·기초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현장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Zero)를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공유·실천한다. /김현정 기자

韓 라이프스타일 등 온라인서 재조명

넷플릭스-한국관광공사 맞손
'한국을 탐험하다' 영상 공개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자사 콘텐츠에 담긴 한국의 고유한 미(美)를 선보이는 영상 '한국을 탐험하다'(Explore Korea)를 7일 공개했다.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모습을 조명해 눈길을 끈다. 특히 '갓 신드롬'을 일으키는 등 조선 시대 전통 의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낸 '킹덤'을 비롯해 '범인은 바로 너!', '좋아하면 울리는' 등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가 다수 포함됐다.



'Explore Korea' 영상 캡처 화면. /한국관광공사

공사는 영상을 본사와 해외지사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채널에 올려 한국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넷플릭스도 한국 홍보 영상에 등장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넷플릭스 서비스 상에서 보다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검색 컬렉션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검색창에 'Explore Korea'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8 | 해질 / 19:56

7월 8일 (수)
음력 : 5월 18일

수도권 날씨
31 ~ 22°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 연천 19/31
- 동두천 20/31
- 백령도 18/25
- 파주 19/30
- 가평 20/31
- 서울 22/31
- 양평 20/30
- 인천 21/27
- 수원 21/29
- 용인 21/29
- 평택 20/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GS칼텍스-LG화학
전기차 충전 솔루션
개발 MOU
08



Life

[라이프]
만두 중주국 중국서
CJ·풀무원
K푸드 열풍
L2



굴뚝이 분수대로... 회색이 초록빛으로...

음침했던 뒷골목, 시민의 '안심 휴식터'로

되살아나는 서울

⑩ 영등포공원

1990년대 빼곡했던 OB맥주공장 부지
너른 잔디밭 등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
낙후 시설 2015년부터 개·보수공사
외지고 부랑자 많던 곳, 역세권 쉼터로

젓빛 도시 서울에 푸른 빛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말 매연을 내뿜던 공장 굴뚝이 하나둘 사라지면서다. 도시에 있던 공장들은 땅값이 싼 지방으로 떠났다. 서울 사는 공장이적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가꿨다.

성동구 성수동 삼익약기 공장, 강서구 등촌동 성진유리 공장, 강동구 천호동 파이롯트 공장이 각각 성수공원, 매화공원, 천호공원으로 바뀌었다. OB맥주 공장 이전 터엔 1만8600여평 규모의 영등포공원이 생겼다. 시는 당시 공장이적지에 있던 건물 42개동을 철거하고 산책로와 전시관, 잔디마당과 함께 500여명이 모일 수 있는 야외 무대를 갖춘 공원을 만들어 1998년 7월 시민에게 개방했다.

◆우범지대에서 주민 쉼터로 변신

지난 6일 공장부지에서 녹색 쉼터로 되살아난 영등포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303m(4분)를 걸으면 공원 입구에 조성된 삼각형 모양의 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삼각광장 옆엔 원형광장이 있고 이 자리에서 시계방향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분수대, 문화마당, 풋살경기장, 자연학습체험장, 무궁화동산이 차례로 들어섰다.

시계가 오후 5시 정각을 가리키자 사람들이 분수대로 몰려들었다. 분수의 물줄기가 '짜아아'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쳤고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비처럼 내리는 물방울을 맞으며 즐거워했다. 영등포본동



6일 오후 영등포공원에 나온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6일 오후 시민들이 영등포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현정 기자

에 사는 설모(56) 씨는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었는데 영등포 공원에 노숙하는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 무섭다고 학교 갈 때 공원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신길역쪽으로 먼 길을 돌아갔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공원을 깨끗하게 잘 다듬어놔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양지화가 돼서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영등포구는 낙후 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공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왔다. 첫해에는 장미원을 확대 조성했고 낡은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를 새 걸로 바꿨다. 2016년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형시계를 설치하고 풋살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했다. 이듬해에는 미관을 저해하는 담장 외관을 새단장하고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관

을 두는 등 공원경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날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선놀음을 즐겼다. 너른 잔디밭 위에 누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젊은이들, 동년배들과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 배드민턴이나 조깅 등 운동을 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양천구에서 온 김원식(80) 씨는 "서울 시내 한복판, 역세권에 이런 쉼터가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예전에는 이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였는데 10년 만에 와보니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영등포역 뒤편 외진 곳이라 대낮부터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부랑자가 많은 범죄소굴이었다"면서 "주먹이 센 왕초들이 천막을 치고 이곳을 점령하시피 해

올 곳이 못 됐는데 전부 싹 사라졌다"며 놀라워했다.

구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달고 기존에 단순 경광등 역할을 하던 화장실 비상벨을 경찰서와 연계해 설치하는 등 범죄 발생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 공장터에서 나오는 물은 약수물?

공원 한복판에 놓인 담금솔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담금솔은 맥주 제조의 가장 첫 과정인 맥아와 홉을 끓이는데 사용되는 대형 솥으로, 코끼리 얼굴에서 양쪽 귀를 떼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흙빛 담금솔은 영등포공원이 옛날에 오비맥주 공장이 있었던 자리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안내팸말엔 "이 장소는 1933년부터 맥주를 생산한 우리나라 최대 맥주회사인 오비맥주 공장터로 1997년 공장이 이전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영등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과거 맥주공장이 있던 자리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공원 한편 수돗가에서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중년 여성이 어르신에게 "여기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가지 말고 집에 있는 수돗물이라 똑같으니 그거 받아서 마시라"고 조언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몸에 좋은 물이라 떠가는 것이니 상관말라"고 쏘아붙였다.

영등포구 주민 이모(54) 씨는 "어르신들이 아리수가 수돗물인지 모르시고 큰 물통에다 물을 받아다가 공원에서부터 힘들게 끄강대며 집으로 다시 가져가시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공원이 오비맥주 공장이 있던 자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약수물처럼 건강에 좋고 깨끗하다는 속설이 있어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떠 가신다"며 "음수대에 '아리수 수돗물'이라고 붙여놔도 잘 믿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